

제4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

일시 : 2018. 6. 7 THU 12:30~17:3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주최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주관 :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

일시 : 2018. 6. 7 THU 12:30~17:3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주최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개 회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3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입니다. 오늘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라는 대주제로 제 46차 춘계학술대회를 학계 내외 귀빈과 학회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46차에 걸쳐 개최된 학술대회 이 자리는 학교 교육과정안에 뿌리 내린 우리 진로교육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를 도와주신 여러분의 관심, 열정, 학문과 정책적 노력, 수고와 열매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진로교육의 성과를 사회통합과 형평성 관점에서 조명하여 바로 진로교육이 미래의 희망 사다리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현장 진로교육에서 우리의 순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걸림돌과 디딤돌이 무엇인지 짚어봄으로써 미래 진로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 함께 논의하며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은 진로교육이 바로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이루도록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 역량과 개인의 진로고민을 예방적 혹은 처치적 차원에서 지원하므로 진로교육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딛고 미래로 올라서는 희망 사다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사다리에 올라설수록, 자신들의 미래 진로 희망에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 튼튼히 그리고 모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다리로 복원하여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로 학교 안 교육과정과 학교 밖 진로체험을 상호 연결하며 공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안으로, 그래서 개인수준을 넘어 국가와 사회전체의 희망사다리가 되는 진로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와 학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OECD와 Cedaop(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는 2000년부터 개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성과를 경제·사회·개인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가

시키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업, 보건건강, 그리고 범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의 촉진,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 그리고 범죄률이 감소됨을,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아는 것에 기초한 일과 평생학습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학교↔일터↔가정」간의 유연한 진로전환, 그리고 변화무쌍한 직업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역량이 함양되어 개인의 직업생활과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강조하면서 공교육안에서의 진로교육은 물론 평생학습안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기반 데이터로 축적하고 교육·훈련·복지·고용의 공공정책 수립과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가장 본질적 교육의 역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로교육도 튼튼하고 촘촘하게 잘 연결된 사다리로 누구나 신뢰하며 내딛을 수 있는, 그래서 진로교육이 개인과 국가의 미래 희망을 성취시키는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본질적 필수 요소로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46차 진로교육춘계학술대회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까지 학회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훌륭한 리더쉽을 보여주신 선임 학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주제발표와 토론, 사례발표 원고를 작성해주신 여러 전문가님들, 또 사회와 좌장을 맡아주신 학회 임원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파트너로 진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원장님에게도 머리 숙여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다리가 되는 진로교육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평생진로교육 체제로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미있는 지식의 공유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 6. 7

한국진로교육학회 13대 회장 李智妍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입니다.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46차 춘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이시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지연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축사를 맡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홍 원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조강연을 맡아 주신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님과 좌장을 맡으신 김한준, 김희수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주제발표자, 사례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경제환경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결과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정책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진로교육이 아이들과 청소년의 미래를 만드는 희망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2010년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2016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이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한국진로교육학회가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우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 1997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진로교육 부문에 대한 연구와 사업 운영을 통한 확장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양적인 증대 뿐 아니라 앞으로 치고나가는 와중에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없는지, 하나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얼마

나 내실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로교육은 우리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며 준비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 사다리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미래를 만드는 희망 사다리로서 진로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기여했으며,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하여 향후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들을 관계 기관들에게 전달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는 등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즐거움과 따스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홍입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6차 춘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원장님, 그리고 이처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지연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요즘의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변화 속도는 오늘의 직업이 그리고 직무역량이 내일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교육의 어원은 educato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교육이란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며, 진로교육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고 이를 영위하도록 돋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걸쳐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하여 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진로교육은 그러하기에 현재의 내가 미래로 가는 과정의 디딤돌이자 사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사다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삶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의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미래 공동체의 안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처한 환경의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주변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실제 가진 잠재력이 유사함에도 발현되는 결과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벌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 잠재력의 실현과 이를 통한 공동체 안녕이라는 진로교육 의의의 실현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를 총족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개인의 맞춤형 진로교육,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교육기조들은 개인의 가능성 발견과 발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의 실천과 닿아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저마다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자신이 길을 찾고 이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돋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보다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들이 사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은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진로교육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라는 주제 하에서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진로교육의 의의와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와 현장 및 학계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진로교육학회의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7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홍**

축 사

제 4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직전에 학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다른 위치에서 축사를 하게 되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매우 어색하고 쑥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준비에 수고하신 이지연 13대 학회장님과 학회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국진로교육학회의 동반자이자 후원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님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홍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학술대회의 주인공은 발표자 및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다섯 시간 남짓하지만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유하는 아이디어와 내용들이 향후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진로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한국교육의 틀에서 짚어주시고 혜안을 주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의 성과와 가치를 발표해 주실 김기현 박사님, 현장 진로교육 활성화의 걸림돌과 디딤돌을 발표해 주실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로 수고해 주실 양종국교수님, 김은석박사님, 조영아교수님, 주재술팀장님과 사례발표를 해주실 김명숙선생님과 고영수팀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제 46차 학술대회의 주제인 '진로교육, 미래를 만드는 희망사다리'가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학교교육이 학생 각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현재 조금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진로교육을 '직업매칭교육'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한 나머지,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세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학교진로교육 무용론, 한계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단연코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래사회가 불확실하고 직업세계가 격변할수록 진로교육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직업사회가 불안할수록 학생들에겐 더욱 진로와 삶에 대한 건강하고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직업세계의 트랜드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속해있는 학

생과 청소년들에겐 더욱 진로교육이 그들을 사회로 연결하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면서 갑질문화, 임금격차, 왜곡된 고용구조 등 사회모순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듯이 진로교육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인, 기성세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진로교육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찾고, 사회로 진출하도록 돋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장 **송병국**

행사 일정

시간	발표 및 내용	
12:30~13:30	【접 수】	
제1부	사회 정윤경 사무국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30~13:50 20'	【개회식】 개회사 이지연(한국진로교육학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축사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재홍(한국고용정보원장) 송병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3:50~14:30 40'	【기조강연】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강연자 : 김경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4:30~14:40 10'	휴식	
제2부	좌장 김한준 부회장(한국고용정보원)	
14:40~15:10 30'	【주제발표 1】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 발표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	
15:10~15:40 30'	【주제발표 2】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디딤돌, 걸림돌 발표자 : 박정근 (화홍고등학교 진로교사,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15:40~16:30 50'	【주제 토론】 • 토론 : 양종국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교수)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영아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수) 주재술 (울산과학기술원, 학사팀장)	
16:30~16:40 10'	휴식	
제3부	좌장 김희수 부회장(한세대학교)	
16:40~17:10 30'	【사례 발표】 • 학교 진로교육 성공사례 : 다문화 학생에게 희망을 발표자 : 김명숙(서울오산중학교, 교사) •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성공사례 :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희망을 발표자 : 고영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 팀장)	
17:10~17:30 20'	【종합토론】	
17:30~	【폐회】	

차례

개 회 사	이지연 (한국진로교육학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iii
축 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v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	vii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ix

기조강연.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김경근(고려대학교) 1

주제발표 1.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

주제발표 2.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 -디딤돌과 걸림돌을 중심으로-

박정근(화홍고등학교) 45

주제 토론

양종국(한국복지대학교)	53
김은석(한국고용정보원)	57
조영아(순천향대학교)	61
주재술(울산과학기술원)	67

사례 발표

김명숙(서울오산중학교)	71
고영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81

기조강연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김경근(고려대학교)

목차

- 문제제기
- 진로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급격한 사회변동의 교육적 함의
-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문제제기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교육 영역에도 그 후유증이 심각
 - 계층 간 교육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이 **계층상승 사다리**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
 - 교육이 희망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의 발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역동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
- **세계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전개되면서 양극화 및 승자독식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불평등과 불확실성의 만연이 불안과 불만의 증폭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의 파편화가 우려되는 실정

문제제기

- 현행 교육제도로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
 - 현행 교육제도는 '**추격형 인재**(fast follower)'를 양성하는 데는 일정 정도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선도형 인재**(first mover)'를 배출하기에는 부적합
 - 단기적으로 교육제도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혁될 가능성성이 별로 없다면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도와줄 필요성
- 진로교육은 미래 세대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의 파편화를 방지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

진로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진로교육의 의미

- 개성,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일생 동안 수행할 일과 직업을 준비하여 일생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일(송병국, 2016)
- 한 개인이 평생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올바르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문승태, 2017)

진로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진로교육의 필요성

- 아동의 꿈을 키우고 자존감 제고
 - 모든 의미 있는 성취는 꿈에서 비롯되며 꿈이 원대하면 성취도 클 가능성
-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혁신적 사고를 지닌 인재 양성
 - 세계화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대안 제시
 - 대학진학률은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실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 매우 심각(문승태, 2017)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미래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의 격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
 - 세계화는 양극화와 승자독식 현상 초래
 - 4차 산업혁명은 인간 노동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 급속히 대체되는 결과 초래
- 평균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할 가능성
 - $70+70+70+70+70 \leftarrow 50+50+50+50+\textcolor{red}{100}$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 시대의 전개

- 세계화의 정의:
 - 상호의존적 네트워크의 전 세계적 확산 현상
- 세계화의 속성:
 - 상호의존성의 지리적 확장 및 강도의 심화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의존성 발현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 시대의 전개

세계화의 배경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 이념적 장벽 해소	• 국가 간 물리적 거리 단축 효과	• 재화와 서비스 이동의 자유 확대

↓

* 국가 간 교류를 저해하는 각종 장벽이 낮아져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김경근, 2006)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 시대의 전개

세계화의 본질

20:80 사회(Martin & Schumann, 1996)

- 지구촌 전체 혹은 각국의 20%는 괜찮은 직업을 갖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만, 나머지 80%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로 힘겨운 삶

승자독식(Winner-takes-all)

-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극소수 경제주체가 시장 전체를 지배

(예: 세계적 유통 공룡 Amazon의 등장)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 시대의 전개
승자독식 현상의 동인

동시 소비(joint consumption) 가능성

- 정보통신 기술 및 교통수단 발달로 뛰어난 서비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 동시 소비가 가능해짐
- 미국에서만 2억 명 시청하는 최고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결승전 Super Bowl의 광고료는 초당 2억 원(2017년 현대차, 기아차 지불 광고료)

대체의 불완전성 (imperfect substitution)

- 뛰어난 재능은 평범한 재능에 의해 쉽게 대체되기 어려움
- 세계화로 인한 사람들의 눈높이, 기호, 취향의 동조화로 대체의 불완전성 범세계적으로 확산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 시대의 전개
슈퍼스타의 탄생(Rosen,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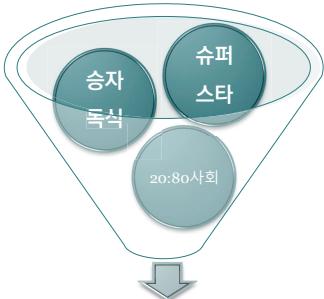
슈퍼스타 탄생

- 특출한 재능 또는 경쟁력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소수의 경제주체
- 미미한 재능이나 경쟁력 차이도 엄청나 소득의 차이로 증폭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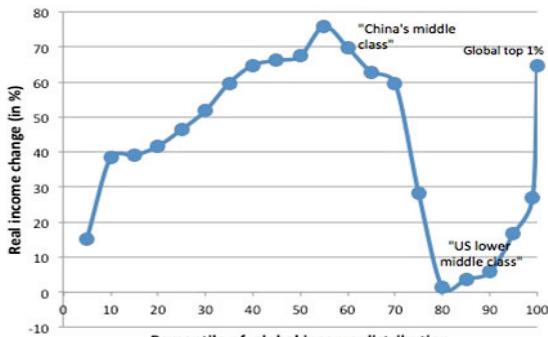


- 승자독식 또는 빈익빈 부익부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 미국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타국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잃음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의 유산

Global Income Growth: 1988–2008



Percentile of global income distribution	China's middle class (%)	Global top 1% (%)	US lower middle class (%)
0	15	25	25
10	40	40	40
20	45	45	45
30	50	50	50
40	60	60	55
50	65	65	55
60	75	75	55
70	60	60	55
80	30	30	5
90	15	15	5
100	65	65	5

출처: Milanovic(2016)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소득 증가분의 44%가 세계 상위 5%에게 귀속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의 유산

- 통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극우의 드세
- 트럼프의 대선 승리 및 브렉시트(Brexit)의 배경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의 유산

국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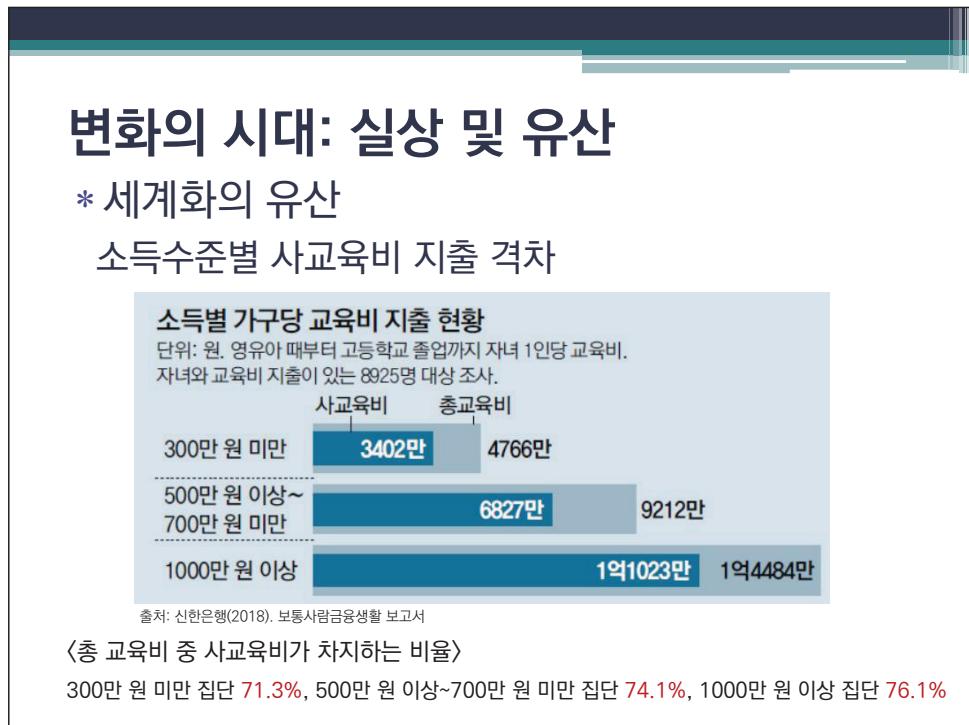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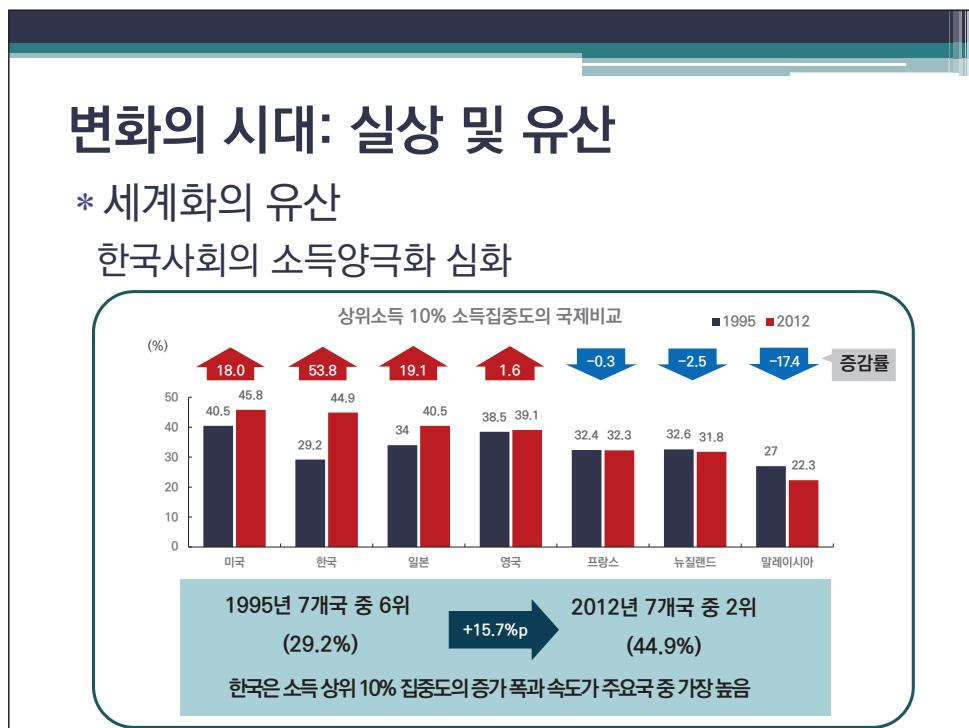
- 상품이나 업소에 대한 정보, 평판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폭넓게 유통
- 상품이나 업소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동네 구멍가게, 음식점 유지되기 어렵게 됨



찾아가는 맛집



대형 할인점, 홈쇼핑업체,
전자상거래업체의 드세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세계화의 유산

한국사회의 계층 간 교육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대학 진학 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수능등급	4년제 대학 진학률	주요 9개 대학 및 의대 진학률	주요 30개 대학 진학률
10분위	4.3	74.5	13.8	23.4
9분위	4.8	75.8	6.3	14.8
8분위	4.9	64.7	2.5	13.4
7분위	5.2	74.3	5.0	14.9
6분위	5.5	61.3	0.7	10.2
5분위	5.8	52.2	0.0	5.9
4분위	5.7	49.3	0.7	6.7
3분위	5.6	34.2	2.5	3.8
2분위	5.4	45.7	0.0	6.3
1분위	5.6	33.8	0.8	2.3

출처: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4차 산업혁명의 전개

- 4차 산업혁명의 본질
 - 장차 새롭게 시작될 현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 경계를 넘나들며 다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현상
→ 단지 디지털산업이 진화하고 있을 뿐, 4차 산업혁명은 없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폭발함에 따라 장차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만연
 - 연결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일부 집단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할 개연성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4차 산업혁명의 전개

- 특이점(singularity)의 발생

- 구글의 인공지능 책임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2029년 정도에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고 2045년쯤에는 인간 지능을 능가하게 되는 특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cf.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박사는 2050년)
- 알파고의 사례가 보여주듯 인공지능은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방법을 사용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
- 머신러닝은 진정한 인공지능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학습하는 것처럼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가리킴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4차 산업혁명의 전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문제

- 인공지능과 로봇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실직의 위험에 빠지는 한편 새롭게 직업을 얻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문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노동 대체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로 요약될 수 있음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숙련 전문직이나 창의성을 가진 집단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며 로봇을 투입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단순 노무직도 자동화나 기계를 통한 전면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대로 버틸 수 있음
 - ✓ 대체 가능한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층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게 될 가능성(Cowen, 2013) → ‘Average is over.’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4차 산업혁명의 전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전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 절반이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있지만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음**
 - ✓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생각보다 남아 있는 일자리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술, 스포츠, 의료서비스 등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
 - ✓ 아날로그적 감성이나 취향이 새롭게 살아남 가능성(예: 한옥 선호)
- 다만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보다 양극화가 한층 심화할 개연성은 있음(윤성식, 2018)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4차 산업혁명의 전개

- **언어장벽 해소**로 인한 노동시장 경쟁 격화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비약적 발전은 조만간 언어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 구글 번역기의 기능이 날로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구글은 현재 40개국 언어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픽셀 버드(Pixel Buds)를 \$159에 판매하고 있기도 함
- 언어장벽이 해소되면 전 세계가 단일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면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심화가 불가피해질 것임(윤성식, 2018)

변화의 시대: 실상 및 유산

* 4차 산업혁명의 전개

•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전례가 없는 것인 바, 알기 어려운 미래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
- ‘인공지능에는 감성이 없다’거나 ‘창의성이 해답이다’라는 식의 진단에 기반한 처방은 유효하기 어려움
 - ✓ 인간의 창의력은 상당 부분 기존 내용을 버무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수준인데 이러한 창의력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음
 - ✓ 세계 바둑 랭킹 1위 커제는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배를 당한 후 알파고의 장점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과 냉정함을 지적(윤성식, 2018)

급격한 사회변동의 교육적 함의

*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의 함의

• 사교육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나 교육성취가 잠재력이 아닌 경제력에 좌우되는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

- 타고난 잠재력 차이만으로 설명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간 서울대 입학 확률 차이는 2배를 넘지 않지만 실제 관찰된 자치구 간 격차는 최대 20배에 달함
- 이러한 차이의 8, 9할은 부모 경제력에 기댄 치장법에 의해 설명됨(김세직·류근관·손석준, 2015)

급격한 사회변동의 교육적 함의

*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의 함의

성적지상주의와 노력주의에서 탈피해야 함

- 국내 사교육산업을 대표하는 M사의 S회장:

- 평소 수강생에게 공부 외에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하라고 설�판했으나 이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
-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면서 명문대학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고 대학 간판이 성공을 담보하는 시대가 아님

급격한 사회변동의 교육적 함의

*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의 함의

- 국내 사교육산업을 대표하는 M사의 S회장:

“가진 사람들이 부를 세습하는 장치들이 너무 단단해요.
자식들을 위해 너무나 튼튼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 한다고, 명문대 나온다고
중산층으로, 그 이상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대학 잘 가는 건 경쟁력 요소의 하나일 따름이지,
그렇게 큰 경쟁력은 아니라는 거죠.”

급격한 사회변동의 교육적 함의

*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의 함의

- 국내 사교육산업을 대표하는 M사의 S회장:

- 평소 수강생에게 공부 외에 달리 구원받을 길이 지적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300억 원을 출연하여 ‘윤민창의투자재단’ 설립

“깽판도 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지 않을까?

대학 잘 간 애들이 보이는 행태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깽판도 좀 칠 수 있는 애들한테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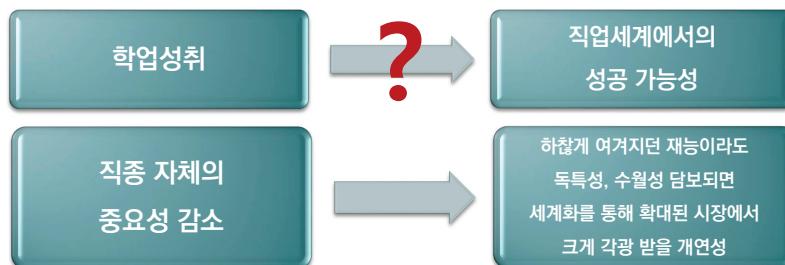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차라리 **기득권의 안전장치가 없는 곳,**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넘볼 수도 없는 다른 길로 빡 치고 들어가라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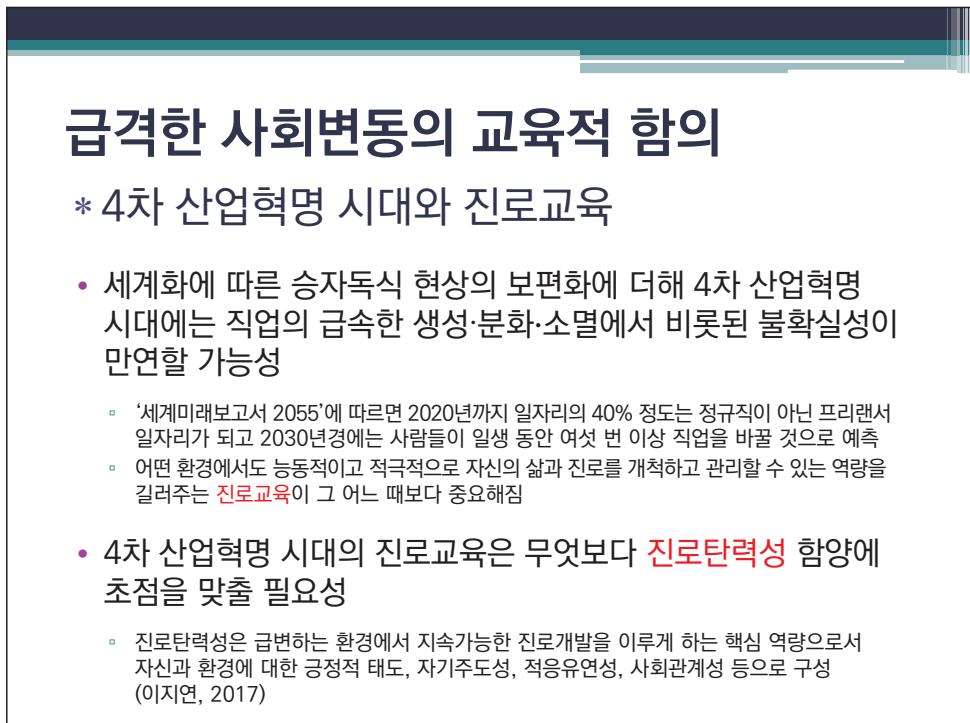
어차피 그들의 안전장치는 쉽게 풀리지 않거든요. 다른 길에서 승부하라는 거지요.”

급격한 사회변동의 교육적 함의

* 학업성취와 직업세계 성공 간 관계 약화



재능이나 능력의 유형(또는 직종)보다
독특성과 탁월성이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에 더 큰 영향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미래 지향적 진로교육 구안의 논거

- 현행 한국 교육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 의견
 - 엠브레이크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지금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매경이코노미, 2018.05)
 - 현행 교육제도는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를 통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함
- 기존 교육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탈피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절실히 필요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미래 지향적 진로교육 구안의 논거

- 진로교육이 희망 사다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능력**과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제시해야 함
- 교육 외에 달리 계층상승의 통로가 없음에도 성적 경쟁에서 불가피하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제적인 계층상승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무척 중요함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고 적응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닥쳐봐야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학습능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학습능력의 요체는 공부하는 습관인 바, **평생학습**을 운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도태가 불가피함
 -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새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음(윤성식, 2018)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학습능력의 요체는 공부하는 습관인 바, 이는 **독서**와 **운동**을 통해 배양될 수 있음
 - 학원에서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는 생활만 이어가는 것은 다가올 변화의 격랑을 헤쳐 나아가는 데 요구되는 능동적 학습능력의 배양을 가져올 수 없으며 **글쓰기**와 연계된 **독서**가 해답
 -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는 인내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운동**은 학습 능력 배양에 매우 중요
-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영역이 결합되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융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협업능력** 배양도 필요(윤성식, 2018)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지도 알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학습능력 이외에 **다양한 기본 역량과 문화적,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필요가 있음
 - 개방성, 유연성, 적응력, 창의력, 공감능력, 종합능력, 인내심, 열정, 판단력, 균형감각, 통찰력,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다양한 역량을 키우려면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딩 교육은 코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컴퓨터 계산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길러줘야 함
 - 문화적,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은 창의력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인간관계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배양에도 도움(윤성식, 2018)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승자독식과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간절히 소망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실천할 필요
 - 생존의 핵심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으려면 **삶 자체는 단순 소박하게 정리해야 함**
 - 엄습하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의연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물 흐르듯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윤성식, 2018)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교육이 거의 유일한 희망 사다리인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진로교육이 특히 중요하며 깨어 있는 교사의 혜안과 관심은 평범한 학생의 미래를 놀랍게 바꿀 수 있음
-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교과 성적이 우수한 집단과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집단을 구분하여 모두에게 가장 적절하고 공평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김경근, 2006)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학업에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닳고 싶은 역할모델로 키워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학업이 아닌 예체능이나 다른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가정형편 때문에 그러한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성
 - 교과 성적이 부진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업성취 제고만 강조하며 이들을 성적 경쟁에 내모는 것은 승산이 전혀 없는 경기에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진배없음
 - 교사가 ‘매의 눈’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살피고 자신들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에 미래를 걸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음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교사가 성취압력을 가할 경우 학업성취 제고 효과가 가정배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학생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사의 의례적 관심이나 성취압력은 아무런 의미도 갖기 어렵거나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구축이 선행될 필요성**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어머니 교육수준별 교사-학생 관계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진로교육

* 희망 사다리 진로교육의 실제

- 윤성빈 선수의 사례



-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닌 ‘평범한’ 고등학생
-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끌어 준 체육선생님의 안목과 조언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개척해야 성공한다.”
- 성취를 위한 간절한 실천: 하루 8끼 식사로 체중 늘리기
+ 매일 팔굽혀펴기 1,000개 이상, 240kg 스쿼트 역기 들기

참고문헌

- 김경근(2006). 한국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위한 과제. *교육학연구*, 44(1), 1-21.
- 김세직·류근관·손석준(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2), 356-383.
-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1-06*, 한국개발연구원.
- 문승태(2017).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 *The HRD Review*, 20(5), 8-19.
- 송병국 (2016).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방향,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윤성식(2018).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전략. 펴주: 수오서재.
- 이지연(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과 진로교육의 방향. *The HRD Review*, 20(5), 20-38.
- Cowen, T.(2013). *Average is Over: Powering America beyond the Age of the Great Stagnation*. New York: Dutton Books.
- Milanovic, B.(2016).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en, S.(1981). The economics of supersta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5), 845-858.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1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

김 기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면서 크게 성장해왔다. 2010년에 제정된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양성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모든 학교에 진로교사 배치가 완료되었다. 2012년에 각급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진로교육의 추진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오랫동안 공전되어 오던 「진로교육법」이 2015년 통과되어 진로교육 추진에 있어서 법적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2009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된 후 진로체험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자유학기제가 2016년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개편하고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을 잇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진로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교육부, 2018).

이처럼 진로교육이 이전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진로교육 추진과정에서 여전히 부족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존재한다. 우선 진로체험 활동의 활성화 정도는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중간 수준이며 진로역량 수준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결과에서 진로체험활동 수준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22개 국가 중 10위였으며 진로개발 역량 수준은 하위권인 18위로 나타났다(이지연, 2015).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진로교육의 방향이 투입(input)에서 성과(outcome)로 바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진로교육이 부족하고 사회계층이나 지역에 따른 격차가 진로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어 사각지대에 놓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교육이나 직업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8년 특수학교에서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 할 수 있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로교육에 있어서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 추진과정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진로체험처에 있어서 질적, 양적 차이가 있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도·농간에 인력과 예산에서 큰 차이를 보여 진로체험활동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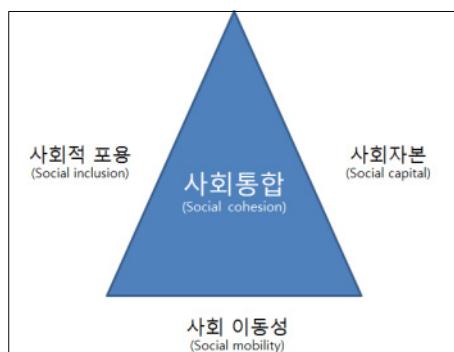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맥락에서 진로교육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진로교육 활성화와 사회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진로교육에 접목시키는 논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어서 진로교육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취약계층의 진로교육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사회통합과 진로교육

통합(integration)은 사회학에서 가장 주된 개념 중에 하나이며 고전 이론가로부터 현대 이론가들까지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이론적 맥락에서 사회 전체적인 통합(societal integration)은 거시적 측면에서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미시적 측면에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나뉘어서 다루어져 왔다(전상진, 2006).

한 사회의 개인과 개인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통합은 Jenson(1998) 등으로부터 사회적인 응집성(social cohesion)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응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성 요소들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해서 Kearns & Forrest(2000)는 가치와 문화, 질서와 통제, 사회적 연대, 사회자본, 소속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장용성, 조문석, 정장훈, 정명운(2012)은 태도 측면에서 신뢰와 관계 측면에서 포용성, 가치 측면에서 행복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37개 국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OECD(2011)에서는 사회적 응집이라는 맥락에서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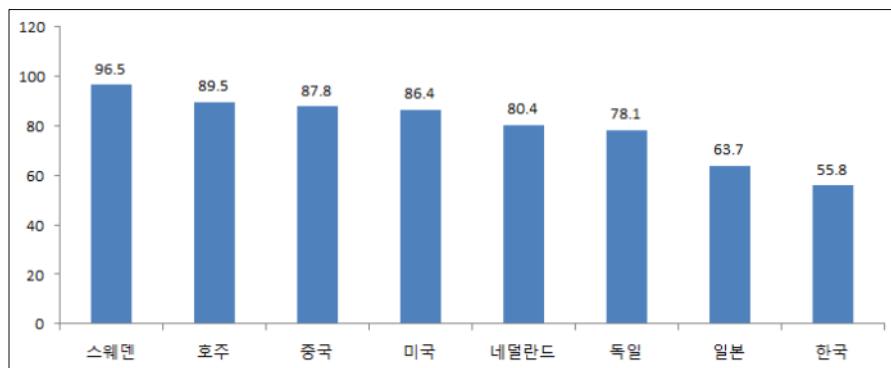
[그림 1] 사회통합의 세 가지 요소

자료: OECD(2011), p.54

출처: 김기현(2015). p. 9.

였다. 먼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도가 높을 때 사회 통합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사회집단 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참여하며 함께하는 정도가 높을 때 사회 통합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직업이동이나 개인의 직업 이동에 있어서 상승 이동의 가능성이 높을 때 사회 통합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OECD(2011)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회적 포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은 사회적 포용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세계가치조사에서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그림 2]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성 국가 간 비교(%)

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며 6차 조사(wave 6: 2010-2014) 결과임.

자료: World Values Survey Database(<http://www.worldvaluessurvey.org>)

〈표 1〉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수용 인식 변화 추이(%)

연도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	나의 절친한 친구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2013	9.8	44.0	29.4	14.5	2.2
2014	8.0	41.3	28.7	18.4	3.6
2015	8.1	35.4	31.0	21.6	3.9
2016	7.1	36.5	35.8	16.9	3.7
2017	5.7	37.0	38.9	15.4	3.0

주: 단계별(이웃→직장동료→절친한 친구→배우자)로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3-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55.8%가 응답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2013년부터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에 대한 수용 인식을 단계별(가장 낮은 단계 ‘이웃’→ 가장 높은 단계 ‘배우자’)로 살펴보았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한 배제 의사에 해당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는 응답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은 감소하는 대신,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라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수용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장 적극적인 수용 의사로 볼 수 있는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응답은 2015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해서 일정정도 거리를 두려는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별로 사회통합이라는 맥락에서 진로교육의 성과와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성별,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차별적이지 않고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곧, 진로 교육의 투입(input)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적인 맥락을 짚어볼 수 있다. 사회자본이나 사회이동성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비롯한 역량이 증진되고 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활발하게 직업이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진로교육의 결과(output)나 성과(outcomes) 측면에서 사회통합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해온 진로교육을 진단하고 실제로 취약계층의 진로교육 참여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음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후자와 관련하여 진로교육의 결과와 성과가 사회통합적인 방향이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사회통합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진로교육

1. 법률과 제도적 측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정책이 사회통합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배려자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은 「진로교육법」이다. 이 법률에서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사회통합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는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진로교육대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진로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률 내용 중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 직업교육 등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있다. 우선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10조에 직업체험과 취업을 지원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가출이나 비행 등으로 위기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에 포괄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취업 및 진로교육, 진로정보 제공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문화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 를 명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법률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권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인 맥락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진로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나 자립지원, 혹은 직업체험, 직업훈련, 취업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시적으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 등이 법률에 담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어서 정부에서 추진해온 진로교육대책에서 사회통합적인 맥락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이 처음 나온 것은 2006년 9개 부처 협동으로 수립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2007-2011)계획」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내놓은 정부 대책은 2010년에 발표한 「진로교육

〈표 2〉 진로교육 관련 법률의 사회 통합적 조항 현황

법안	조항	비고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15. 6.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14. 5. 제정
아동복지법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04. 2.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61. 12.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 9.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97. 1. 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2010). 이 종합계획은 진로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적인 진로교육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서 「진로교육법」 수립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진 「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이하 5개년계획)」이 2016년에 발표되었다(교육부, 2016). 여기에서는 두 가지 계획의 사회통합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정책과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10년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진로교육 추진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핵심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수립한데 비해 2016년 5개년계획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해 다른 유관부처의 협조를 구하기는 했으나 단독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 대책이 주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진로교육법」에서 국가의 책무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타 법률처럼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곧, 정부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진로교육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

수립주체의 차이는 정책영역을 나누는데 있어서 차이를 가져왔다. 2010년 종합계획은 취

〈표 3〉 정부 진로교육계획 사회통합적 정책과제 비교

구분	진로교육종합계획(2010)	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2016-2020)
정책영역	II.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정책과제	2-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2-1-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2-1-2 맞춤형 프로그램 표준화, 특성화 및 인프라 조성	2-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 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2-1-1.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 공 2-1-2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2-2. 다문화·탈북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2-2-1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및 자립지원 확대 2-2-2 탈북 청소년 진로교육 및 자립지원 확대	2-1-1.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 공
	2-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2-3-1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교육비 지원 (특별 지원 청소년사업) 2-3-2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2-1-2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2010). 교육부(2016).

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3대 정책 영역 중 하나(다른 2가지는 I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III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2016년 5개년계획은 4대 정책 영역 중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중 8개 추진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정책 영역의 후순위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정책과제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정책사업들을 담고 있다면 이를 문제점으로 다를 필요는 없다. 2010년 종합계획은 취약·위기 청소년, 다문화·탈북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 대상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6년 5개년계획은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2016년 5개년계획에서 정책과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할 정책 사업들이다. 2010년 종합계획은 반대로 이 정책 영역의 대부분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업무는 현재 여성가족부 이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와 탈북 청소년에 한해 부주관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명시되어 있다. 2016년 5개년계획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

〈표 4〉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진로교육 관련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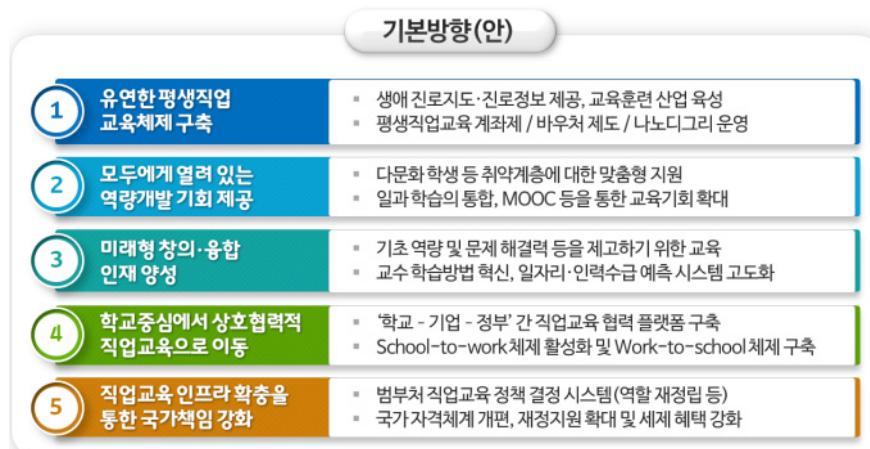
목표	전략	국정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 (혁신학교 등 확대)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관리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족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잘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5개년 계획 수립 시에는 다른 기본계획들처럼 교육부가 아닌 관계부처 협동으로 수립 주체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담고 있는 국정과제는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서 제시되어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중 구체적으로 진로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정과제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등 세 가지이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중에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은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개편으로 제시한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의 내실화와 자유학년제 확산 추진 등이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대입 지원과 함께 교육 지원 중 일부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이 제시되어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20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에 대한 재정지원 및 학점제 단계적 운영 등이 제시되어 있다.

2018년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8).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부에서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18년에 105교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정책 연구를 실시해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제를 연계해 자유학기의 경험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하는 방안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3)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안)

자료: 교육부(2018)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2018)에서 제시한 2018년 업무보고에서도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큰 틀에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은 진로교육을 담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제시된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은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탐색 지원과 ② 진로체험 격차 완화와 질 제고 방안이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두 번째 정책과제가 관련이 있다. 이 정책과제는 도서 벽지 등 소외지역에서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체험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교 진로체험버스 참여 학교 확대(2017년 25개교→2018년 50개교), 다문화멘토와의 원격 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학교 확대(2017년 67개교→2018년 80개교), 취약계층 대학생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시범 실시(2018년 800명, 1인당 평균 350만 원) 등이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진로교육 관련 정책 내용들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고 범부처 간에 협력이 필요한 취약계층 관련 진로교육 부분을 교육부 단독 사업만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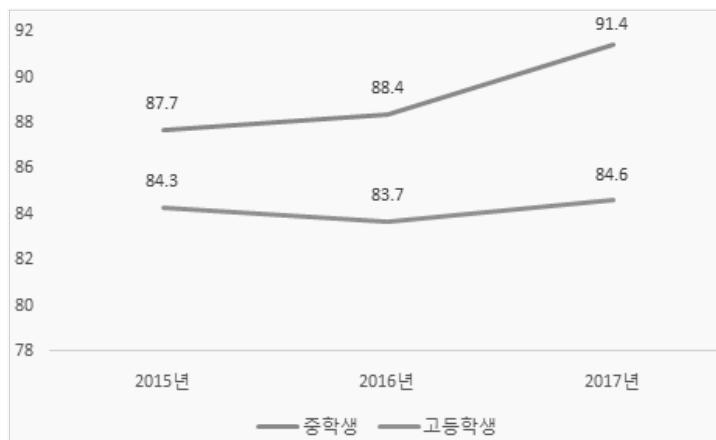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는 취약계층 진로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이다. 교육부에서는 특수학교에서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 전국의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는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진로교육법」 제정 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010년부터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진로교육 추진에 있어서 사회통합적인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진로교육 참여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배제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한다.

2. 진로교육 참여

진로 교육 참여 실태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이루어지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조사에서 취약계층의 참여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조사는 2006년 진로교육 평가지표 개발이 이루어진 뒤 2007년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국가승인통계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2015년부터이다(장현진 외, 2017).

교과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교과목인 ‘진로와 직업’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채택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라는 맥락에서 학생 조사 결과를 통해 진로교육 참여 실태를 살펴보자 한다.



(그림 4) 교과목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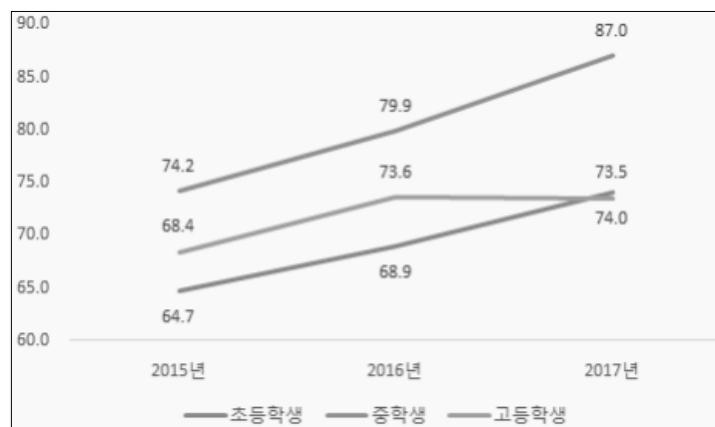
자료: 장현진 외(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 고등학생 모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최초 조사인 2007년도 결과(오호영, 이지연, 윤형한, 2007)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19.9%, 고등학생은 42.1%가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을 학교에서 공부하였다고 응답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응답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과 이외에 진로활동으로 이 조사에서는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등에 대한 참여 여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 학생들의 만족도와 향후 참여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로 체험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참여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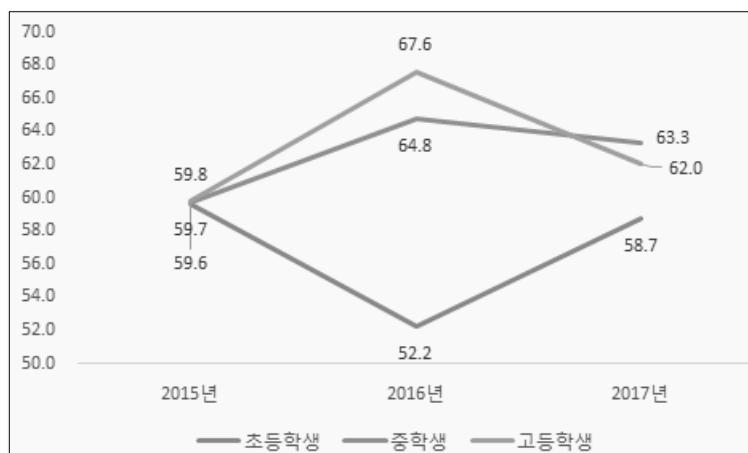
다음으로 진로상담 참여 실태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5년보다 2016년 참여 비율이 증가했으나 2017년 다소 낮아졌고 초등학생은 반대로 2016년보다 2017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비율에 있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로상담 참여 비율을 처음으로 조사한 2009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이 12.6%, 중학생이 10.5%, 고등학생이 25.4%로 낮아 8년 사이에 진로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준, 정윤경, 2009).

다음으로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통계청 승인통계로 이루어지고



(그림 5) 진로체험 참여 비율 변화 추이(%)

자료: 장현진 외(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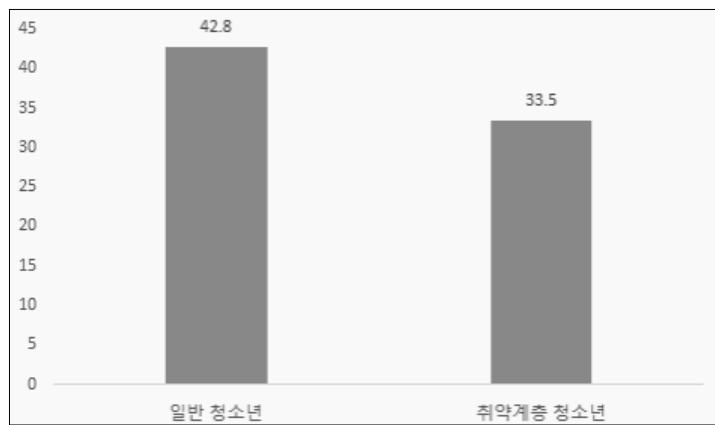


(그림 6) 진로상담 참여 비율 변화 추이(%)

자료: 장현진 외(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있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2017).

이 조사에서는 진로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진로체험 활동 참여에 있어서 취약 계층 집단을 추정해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7차년도 자료(2016)를 사용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고1 시점이 되었을 때 응답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체 응답자 수는 2,364명이며 취약계층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14명)이거나 가구의 연간 소득



(그림 7) 일반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체험 참여 비율 비교(%)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2016년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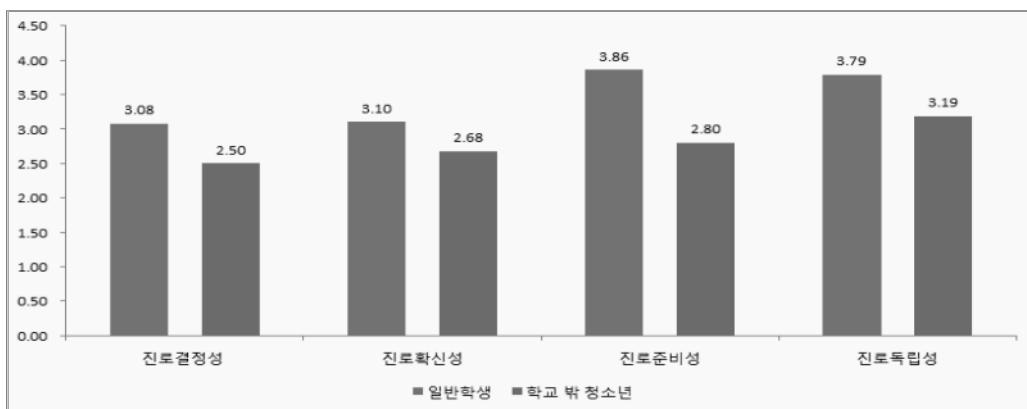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상대빈곤층 가구의 자녀(172명)이거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19명),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는 청소년(13명)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빈곤가구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표본수가 매우 적어 취약계층 집단으로 한꺼번에 뮤어 결과를 살펴보았다. 일반 청소년 중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42.8%인데 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 중 33.5%만이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일수록 진로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서 동일 시점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동일 지표를 사용해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비교해 일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에 이루어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최인재 외, 2009)는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이루어진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최인재 외, 2015)에서 사용한 진로 관련 지표를 그대로 사용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차를 달리 하기는 하지만 동일 지표 결과를 토대로 일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가출 청소년, 소년원에 다니는 청소년, 보호관찰소에 다니는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로 전체 응답자는 4,686명이었다.

먼저 두 조사에서는 진로·직업 태도를 진로결정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 등 4가지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4가지 하위요소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의 점수가 일반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로준비성으로 이는 “진로결정에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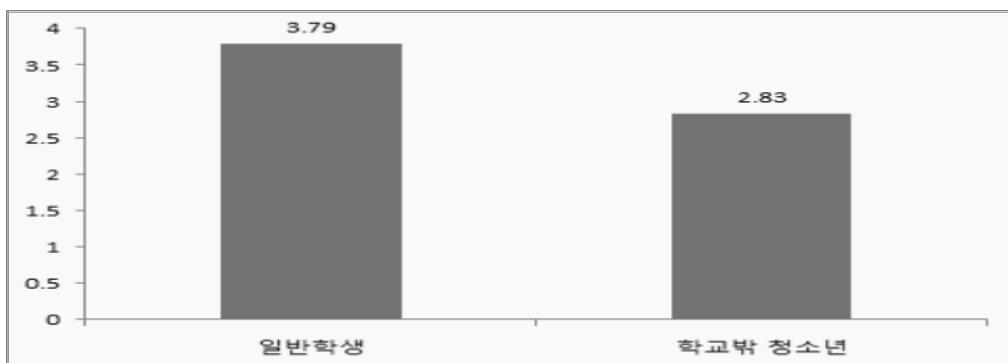
(그림 8) 일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 · 직업 태도 점수 비교(점)

자료: 5점 만점으로 학생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 진로 · 직업실태조사(2009), 학교밖 청소년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5)에서 가져온 것임.

출처: 조규필 외(2017). p. 7.

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나타내는 차원”을 의미한다(최인재 외, 2009: 78).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교육을 통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비교해 보면, 일반학생은 5점 만점에 3.79점인데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은 2.83점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업이나 학과를 검색하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그림 9) 일반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준비행동 점수 비교(점)

자료: 5점 만점으로 학생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 진로 · 직업실태조사(2009), 학교밖 청소년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5)에서 가져온 것임.

출처: 조규필 외(2017). p. 7.

받거나 직업체험이나 직업멘토링을 경험하는 등을 얼마나 했는지를 물어본 것이다(최인재 외, 2015: 278). 이 결과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참여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로교육 참여를 취약계층과 일반 청소년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참여비율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사회 포용 관점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진로교육의 성과

진로교육이 사회통합적인 맥락에서 어떤 성과와 가치를 갖는가와 관련하여 장현진 외(2017)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창업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분석모형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참여여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성과와 가치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의 성과로는 진로활동 만족도를 제외하고 진로계획 및 준비도, 진로개발역량, 학습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진로계획 및 준비도는 희망진로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의 정도와 희망 진로 관련하여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진로 개발역량은 자기보고(self-report) 형태로 자기 이해와 사회성,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등 진로 성취기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역량 요인에 대해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학습태도는 자율적 학습 공기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표 5>는 진로교육의 다양한 유형별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진로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와 직업 수업과 진로심리검사 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 진로 동아리, 진로탐색, 창업활동 등은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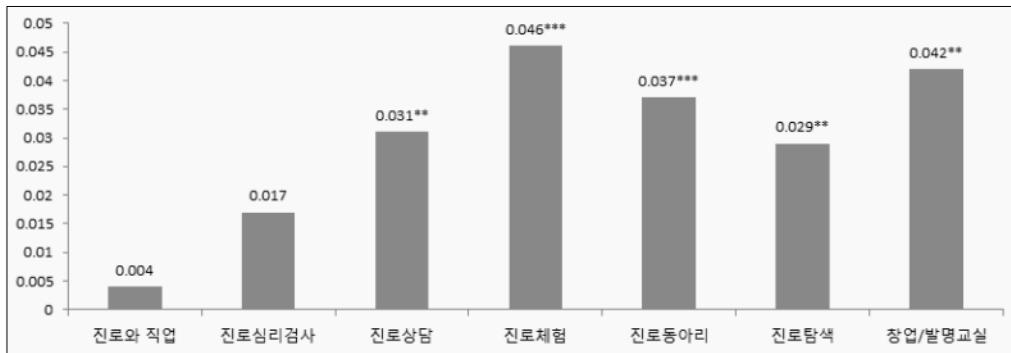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는 진로개발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진로체험이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로상담과 동아리, 창업/발명 교실 참여, 교과수업 중 진로탐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이 사회통합적인 맥락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통제할 수 없고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동일한 효과가 나고 있는지를 통제변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5〉 진로교육 유형별 진로교육 성과 분석 결과(OLS)

	진로계획 및 준비도	진로개발역량	학습태도
진로와 직업 수업	+	+/-	-
진로심리검사	+	+/-	+/-
진로상담	+***	**	+ **/***
진로체험	+/-	+ ***/***	+ **/***
진로 동아리	+***	+ **	+ ***
진로탐색	+	+ **/***	+ **/***
창업활동	+ **/***	+/- **/***	+/- **/***

주: 성별, 학교 규모, 학교 유형, 희망직업 유무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OLS)을 통해 나온 결과이며 +/-는 효과의 방향을, (*p<.05, **p<.01, ***p<.001)는 유의도 수준을 의미함. 하위요소별로 결과가 다를 경우 효과의 방향과 유의도 수준을 모두 표시함.

자료: 장현진 외(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pp. 300-304.



(그림 10) 진로 활동이 자기이해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출처: 장현진 외(2017). p. 302-303. (*p<.05, **p<.01, ***p<.001)는 유의도 수준을 의미함.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2014)은 매칭 방법(matching method)을 활용하여 유사실험설계를 통해 참여와 비참여 집단을 동질화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체험 참여(직접만 참여, 간접만 참여, 전체 참여로 구분)가 진로성숙도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과 역시 분석하였다. <표 6>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로체험 참여는 진로성숙도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진로체험의 진로교육 성과 분석 결과(match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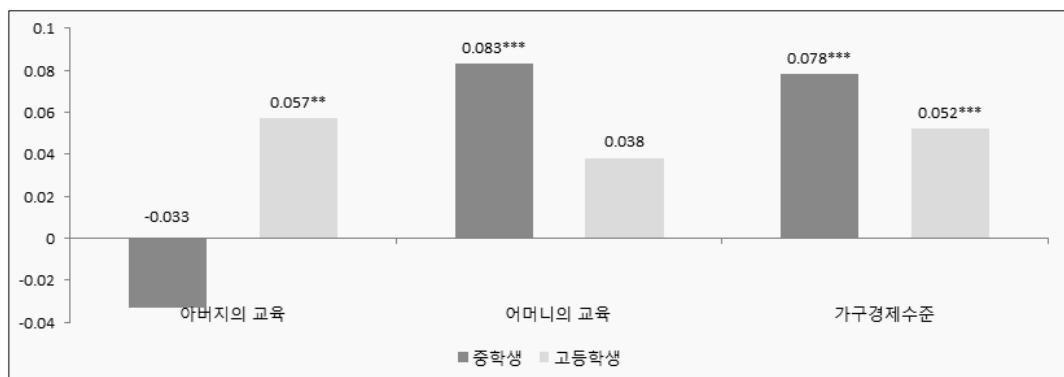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칭 전	매칭 후	매칭 전	매칭 후	매칭 전	매칭 후	매칭 전	매칭 후
전체 체험	+***	+***	+***	+***	+***	+***	+***	+***
직접 체험	+***	+***	+***	+***	+***	+***	+***	+***
간접 체험	+***	+***	+***	+***	+***	+***	+***	+***

주: 성별, 학교계열(고교의 경우만), 학년, 학업성취도(진로성숙도의 경우만),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구 경제수준, 지역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칭방법을 통해 나온 결과이며 +/-는 효과의 방향을, $(*p<.05, **p<.01, ***p<.001)$ 는 유의도 수준을 의미함. 하위요소별로 결과가 다를 경우 효과의 방향과 유의도 수준을 모두 표시함.

자료: 김기현, 유흥준, 오병돈(2014). p. 12와 p. 14.

이어서 사회통합적인 맥락에서 사회계층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계층 변수로 포함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가구의 경제적 수준 등이다.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매칭 후 가족배경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이나 가구경제수준은 진로성숙도에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계층적 차이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교육은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사회성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높이고 진로성숙도나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회계층에 따

(그림 11) 가족배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출처: 김기현 외(2014). p. 12. $(*p<.05, **p<.01, ***p<.001)$ 는 유의도 수준을 의미함.

른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나아가며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진로교육은 사회적 포용이나 사회자본, 사회이동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포용은 주로 진로교육의 투입과 관련하여 진로교육 참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다를 바 없는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이나 사회이동성 증진은 진로교육의 성과와 관련하여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진로교육의 투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청소년도 진로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관련 법률에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육 참여도에 있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여전히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일반 청소년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등에서 취약계층 진로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의 성과에 있어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기이해와 사회성,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통합적인 맥락에서 진로교육의 성과와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가족배경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진로교육의 성과와 관련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 이를 다룰 것을 밝히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교육부 (2016). 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8). 2018년 업무계획-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세종: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2010). 진로교육종합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18.
- 김기현 (2015).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 이동성 증진 정책현황 및 과제. 국민대통합 정책연구 협의회 이슈보고서 vol.7.
- 오호영, 이지연, 윤형한 (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준, 정윤경 (2009). 진로정보센터 운영[2009]: 진로교육지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2015). 학생의 꿈과 끼를 맞춤하는 진로교육: 한국의 학교 진로상담(지도) 종합 지원 체계. 2015 4th ICEF(진로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pp. 229-268.
-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113-149.
- 장영석, 조문석, 정장훈, 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289-322.
- 장현진, 민숙원, 김민경, 류지영, 김재희 (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2017).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상진 (2006). 통합은 사회 갈등과 문제의 해결책?-통합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229-256.
- 조규필, 김기현, 김강호, 김수진, 윤제현, 전미진 (2017).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 직업 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CPRN Study No. F/03.
- Kearns, A., & Forrest, R. (2000). Social Cohesion and Multilevel Urban Governance. *Urban Studies* 37(5-6), 955-1017.
- OECD (2011). Social Cohesion in Shifting World. OECD Publishing.

주제발표 2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 -디딤돌과 걸림돌을 중심으로-

**박정근 (화홍고등학교 진로교사,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 -디딤돌과 걸림돌을 중심으로-

박 정 근

(화홍고 진로진학상담교사)

I.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2010년 진로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교육부가 매년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성과를 연구한 결과물도 나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2017년까지 진행되었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2015, 정철영 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이뤄지는 진로교육 평가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진로교육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진로교육 성과에 관한 보고서들이 있다.

본 연구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¹⁾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성과를 알아보고,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디딤돌과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진로교육의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설문 대상: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 조사 기간: 2018. 5. 22.~5. 25. 응답자수: 790명. 전체 진로진학 상담교사 수: 5,100여명

II. 우리나라 주요 진로교육 정책 추진 경과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해마다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고, 2012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발표했다. 이어 2013년에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목표로 전국 모든 중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다. 2014년의 진로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시·군·구별로 지역진로교육협의체와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체험 지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2016년에는 ‘2016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6년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결쳐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다.²⁾

III.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와 디딤돌 및 걸림돌

우리나라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성과를 가져오는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한 요인은 무엇인지, 그로 인한 결과를 알아보고, 반대로 그러한 성과들을 가져오는데 있어 부정적인 역할을 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2011년부터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면서 학교 진로교육에 변화가 생겼다. 진로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면 무엇을 꼽겠는가라는 질문(1.2순위 복수 응답)에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가 62%로 제일 많았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의 인식이 향상되었다.’가 38%로 둘째로 많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가 33%로 셋째로 높게 나왔다.

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인식이 높아져 그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2) 출처: 진로교육개론(2017)(김봉환 외)

된다'는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고교 3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찾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질문: 2011년부터 진로교사가 배치되면서 학교 진로교육에 변화가 생겼다. 진로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1·2 순위 복수 응답)			
문항	내용	응답자수	비율
①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직업체험처가 많이 늘어났다.	182	23%
②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497	62%
③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	268	33%
④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급 학교(초->중, 중->고, 고->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28	3%
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의 인식이 향상되었다.	308	38%
⑥	기타	7	0%

2. 학교 진로교육 발전의 디딤돌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디딤돌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1·2 순위 복수 응답)라는 질문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이 68%로 제일 많았고, '진로교육법'이 35%로 둘째로 많았고, '진로교육정책'이 20%로 셋째로 높았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2011년 고등학교에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8기가 선발되었으며 현재 5100여명의 진로교사가 중·고교에 배치되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2015년에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이 동시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활성화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의 지원,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진로교육의 성과 및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했다(문승태, 2015: 96-97).

진로교육 정책은 진로교육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상정해서 전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입안한 각종 방침이나 대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이를 결정하는 주체와 집행해야 할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주

체가 되어 진로교육 정책을 대거 양산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인프라의 구축, 프로그램의 내실화, 전문인력 확대 3개의 축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³⁾

진로교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진로교육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진로교육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진로교육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진로교육 정책 분류⁴⁾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진로교육 전담기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확대	·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배치
· 진로개발 역량 지표 개발, 보급	· 진로교육집중학년 · 학기제 시행	· 진로전담교사 자원인력 확대
· 진로정보 제공	·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 학부모 진로교육 제공	· 진로체험 확대, 강화 · 대상별 진로교육 강화	·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질문: 초 · 중 · 고 학교 진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디딤돌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 2 순위 복수 응답)

문항	내용	응답자수	비율
① 진로교육법		277	35%
② 진로교육정책		165	20%
③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72	9%
④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51	6%
⑤ 진로교육집중학년 · 학기제 운영		14	1%
⑥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540	68%
⑦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 연수 참여		73	9%
⑧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의 적극적인 지원		45	5%
⑨ 중등학교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92	11%
⑩ 다양한 진로교육 네트워크(진로교육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한국진로교육학회, 국내 · 외 진로교육 포럼, 진로교육 전문기관 협의회, 국가진로교육센터) 구축		96	12%
⑪ 기타		6	0%

3) 출처: 진로교육개론(2017)(김봉환 외)

4) 출처: 진로교육개론(2017)(김봉환 외)

3. 학교 진로교육 발전의 걸림돌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 발전의 걸림돌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1·2 순위 복수 응답)’라는 질문에 ‘일관성이 부족한 정부 진로교육 정책’이 46%로 제일 많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대입제도’가 42%로 둘째로 많았고,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이 31%로 셋째로 높았다.

‘진로교육 정책’을 학교 진로교육 발전의 첫 번째 걸림돌로 선택한 것은 진로교육 정책이 진로교육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일관성이 부족했던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시 적용된 진로교사 티오(공립 교사: 정원 내 0.5티오, 사립 교사: 정원 외 +1 티오로 선발)가 2015년 정원내로 들어가면서 0,0으로 된 문제,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한 진로교사 양성제도가 현재 까지도 올바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대입제도’ 문제는 잘못된 대입제도가 진로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임을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입시 중심 교육, 수능 중심 교육이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역량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극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관리자(교장, 교감), 일반 교과 교사, 담임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질문: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 발전의 걸림돌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2 순위 복수 응답)

문항	내용	응답자수	비율
①	진로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91	11%
②	일관성이 부족한 정부 진로교육 정책	364	46%
③	학력 간 임금 격차 및 불평등 사회 구조	167	21%
④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158	20%
⑤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252	31%
⑥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대입제도	335	42%
⑦	기타	14	1%

IV. 우리나라 진로교육 발전 방안

‘학교 진로교육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2 순위 복수 응답)’라는 질문에 ‘국가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이 54%로 제일 많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적합한 대입제도 만들기’가 46%로 둘째로 많았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가 36%로 높게 나왔다.

‘국가 진로교육 시스템’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진로교육의 비전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목표는 국가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 공공정책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교육·고용·복지 등의 공공정책의 핵심에 국가 진로교육의 성과가 녹아들어 국가 공공정책과 국가 진로교육 간의 생산성 있는 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진로교육에 대한 범부처 간의 협력화 둘째, 국가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간의 긴밀한 연계화 셋째, 미래 노동시장 요구 관점의 국가 진로교육에 대한 R&D 활성화이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쏠림현상, 청년실업, 학교폭력 등과 같은 교육·사회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진로교육을 사후 대처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변화무쌍한 노동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중심을 둔 진로교육으로의 미래지향적 관점을 의미한다.⁵⁾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적합한 대입제도 만들기’가 국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것은 별첨 자료에서 다루기로 한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3~4년 전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하고 싶은 진로직업체험을 안정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구는 많은데 공급이 한계에 봉착했다.

5) 진로교육개론(2017)(김봉환 외)

질문: 학교 진로교육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2 순위 복수 응답)			
문항	내용	응답자수	비율
①	국가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430	54%
②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227	28%
③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적합한 대입제도 만들기	364	46%
④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제고	286	36%
⑤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현재는 진로교육 담당자만 배치됨)	43	5%
⑥	기타	15	1%

V. 나가며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진로교육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한 요인과 부정적 역할을 한 요인들을 거칠게 살펴보았다. 전국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의견은 숙고할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정체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진로교사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학교 구성원들(관리자, 교사, 학부모)이 학교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진로교육 정책이 진로교육 발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일관성 있게 진행되므로 현장교사들로부터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한다.

셋째, 학교 진로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학입시 제도를 올바로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국가 진로교육 시스템을 올바로 구축하고,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토론 1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 · 사회적 성과와 가치

양종국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교수)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에 대한 토론

양 종 국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I. 발표자 의견에 대한 소고

-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사회배려자에 대한 부처간의 진로교육이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부차간의 협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진로교육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 사회통합적인 맥락에서 진로교육의 사회적 포용이나 사회자본, 사회이동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적포용과 사회자본, 사회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발표자가 제시한 것처럼 OECD(2011)가 제시한 사회적 포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실태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의미가 준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진로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국가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는 진로개발역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진로체험이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진로상담과 동아리 순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회배려자의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한 진로체험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진로교육의 투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차별에는 일반인의 관점으로 구축된 환경과 구조, 인식으로부터 야기되는 불리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배려자에 대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법적 제한이나 불리한 차별대우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장애나 다문화, 위기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만으로도 처음부터 출발선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별대우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르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즉, 진로교육에 대해서 일반청소년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배려자에게는 이들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진로교육의 성과에 있어서 다양한 진로교육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기이해와 사회성,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진로교육의 성과와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II.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배려자를 위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

첫째, 사회통합을 위한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진로교육법에 따른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배려자를 위한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률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13조 차별금지의 5항에서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 제10조의(장애학생 지원 부서 및 담당자) 1항에서 교육책임자는 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급별, 평생교육관련 기관 까지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여 법률에 따른 시행주체와 담당자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로교육법의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속득종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시행령에서는 주로 진로교육의 현황조사,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진로전담교사,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진로교육집중학년 및 학기제 운영등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회배려자를 누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구체성, 실천적의미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단순히 특수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한다는 담론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사회배려자를

위한 전담부서나 담당자, 역할등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법률적으로 “---을 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는 “---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의미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학교현장이나 진로교육의 수요자에 해당되는 사회배려자들의 측면에서는 큰 의미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배려자를 위한 진로교육이 각 부처간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이나 보호소년들을 위한 꿈드림지원 센터 등과 같은 여성가족부의 진로교육, 탈북자나 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진로교육지원 사업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원드림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및 비행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법무부의 꿈키움 센터, 장애인들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등이다. 그러므로 사회배려자를 위한 진로교육의 중복성의 문제나 실효성있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진로교육센터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과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배려자를 위한 진로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진로교육학회나 협회, 사회배려자를 위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학회 등과 연계한 전문가 그룹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회배려자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사회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시각이나 일반교육적인 시각이 아닌 수요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 수요자에 해당되는 사회배려자들도 다름과 차별을 구별하고, 발달과정상 진로교육의 민감적 시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실제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토론 2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 · 사회적 성과와 가치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개인·사회적 성과와 가치'에 대한 토론

김 은 석

(한국고용정보원)

‘사회통합 측면’ 혹은 ‘사회통합 맥락’에서의 진로교육 성과와 가치라는 표현은 해석하기에 따라 원인으로서의 진로교육과 결과로서의 진로교육을 모두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제자께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감안한 진로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원인으로서의 진로교육은 사회통합을 위해 진로교육 장면에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고려나 계층 간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발제자께서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 내에서 사회적 배려자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진로교육 차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접근이나 유관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결과 및 성과로서의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얼마나 구현해 나가고 있는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진로교육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자기이해와 사회성, 진로성숙도, 학업성취도 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진로교육의 성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진로교육 참여자 중에서도 계층 간 차이에 따라 진로성숙도 등 진로교육의 주요 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진로교육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사회통합의 원인으로서의 진로교육이든 결과로서의 진로교육이든 상관없이 진로교육과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실천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진로교육은 일부 사람이나 계층을 위한 또 하나의 ‘엘리트 양성 과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발제자의 문제제기와 논의에 전반적으로 뜻을 함께하며,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기초로 몇 가지 고민과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5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로교육법」이 전반적으로 사회통합적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상을 ‘학생’으로 국한시킨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진로교육법」에서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진로교육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과 취업 지원을 다루고 있기에 「진로교육법」의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삼는 것이 문제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로교육법」이 유일하게 진로교육을 직접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오늘날의 사회변화와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은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점차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구성원 전체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현 「진로교육법」의 목적(제1조)과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제4조)에서 ‘학생’을 ‘개인’ 내지 ‘국민’으로 바꾸어도 내용상의 오류 없이 오히려 진로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보편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둘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여 주체의 차이는 단지 정책 영역이나 내용 구성상의 차이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중요시 여기는 가치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참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발제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이 아닌 교육부 단독으로 수립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비롯한 진로교육 대상의 확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체험의 활성화 및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등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부 중심의 강점과 역할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요소, 그 중에서도 개인 및 사회집단 간 신뢰와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합 측면에

서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기본계획 또한 추진 과정에서부터 관련 부처들 간 다양하고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발제에서는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진로체험, 창업/발명 교실,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이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는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2012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결과에 따라 진로체험 활동 수준은 조사 대상 국 중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하며, 진로개발 역량 수준은 그보다도 낮은 하위권에 불과하기에 성과(outcome)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진로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은 사회성(대인관계, 의사소통 등)과 시민의식(타인 배려, 공동체 의식 등) 등을 포함하기에 결과적으로 진로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재는 진로교육 투입(input) 대비 성과(outcome)가 낮기 때문에 후에는 성과 중심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투입과 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둘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한편에서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더욱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로개발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현장에서의 고민과 노력,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제에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진로교육 활성화와 사회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서두의 문제제기를 통해 언급한 바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진로교육 활성화 및 사회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은 학교 진로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통합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수많은 논의와 시도와 무엇보다도 각 대상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에 있어 현재와 같이 학교 진로교육 체계 내에서 진로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시각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연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적 배려자에 속하는 대상은 이질적 다 범주 소수집단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맞춤형 진로지도 뿐 아니라 학교의 틀을 벗어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혹은 이후의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기회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사회적 배려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열악한 경제적 여건은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로 이어져 더 큰 어

려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로교육이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지원과 계층 간 격차 해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단기적·단편적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학교 진로 교육을 넘어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며 통합적인 진로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토론 3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 -디딤돌과 걸림돌을 중심으로-

조영아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수)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 '에 대한 토론

조 영 아

(순천향대학교)

-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한 원고를 작성해주신 박정근 회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의 진로교육 성과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발전요인(디딤돌) 그리고 아직 해결해야 할 장애 요인(걸림돌)에 대한 현장 진로전담교사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 진로교육 정의¹⁾와 학교진로교육의 목표²⁾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진로교육은 한 개인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매우 이상적인, 그리고 학교뿐 아니라 가정,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접근이 요구되는 다소 어려운 학문 및 실천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교육은 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 진로교육의 다양한 성과들과 그 성과를 가능하게 한 디딤돌

- 현재 진로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러한 발전은 현재도 진

1) 진로교육은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하며, 선택한 진로를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를 통하여 그 진로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진출한 분야에서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정철영, 2017)’으로 정의될 수 있음
2) 학교진로교육의 목표는‘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 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교육부, 2015)’임

행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의 성과와 이를 가능하게 한 디딤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로교육의 성과가 다시 환류되어 진로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그러한 디딤돌이 굳건하게 다듬어져 다시 큰 성과로 나타나는 선순환적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원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교 진로교육'과 관련한 성과들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선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학교 내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학교 진로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도 가장 활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은 더욱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학교 진로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진로교육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진로전담교사의 양성과 배치, 학교 내 진로 관련 다양한 자원 구축 역시 학교 진로교육의 매우 중요한 성과이자 큰 디딤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전문 인력과 부서 신설은 진로교육이 수행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인적 및 물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진로전담교사 배치는 현재 95.3% 수준으로 배치되었으며, 2020년까지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100%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아직 보직교사로 임명되고 있으나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면서 모든 학교급별 진로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교육부, 2016). 이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 의하여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 수업뿐 아니라 학교 진로교육 전반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학교 내 진로전담 인력의 노력만으로 현재의 학교 진로교육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진로교육은 학교 내 활동만으로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 외 다양한 기관·기업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역시 진로교육의 의미있는 성과이자 향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에서 '체험'이라는 용어가 핵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학교 안에 국한되었던 교육적 활동 및 경험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학교 밖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유관 기관 협력망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진로교육과 관련한 주요한 성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었던 데에는 200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과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진로교육 종합계획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로교육 성과 향상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015년에 제정·시행된 진로교육법일 것입니다.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들이 안정되게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2017년 개소한 국가진로교육센터와 같이 진로교육의 성과이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결림돌

- 학교진로교육이 현재의 발전과 성과 그리고 다양한 디딤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원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와 급변하는 노동 및 고용환경,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같은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묵직한 결림돌들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원고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교육 목표 부재, 초·중·고 학교급별 수준별 차이와 연계성이 부족한 진로교육 내용, 매칭이론에 기반한 진로교육, 일회적 성격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진로교육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 미흡 등과 같은 현재 학교진로교육 목표, 내용, 방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결림돌들 역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전체 교육과정안의 부분요소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와 직업'선택교과, 한 학교에 1인만 배치된 진로전담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함양,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진로교육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등 학교진로교육 운영과 관련된 결림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 내, 학교 밖 다양한 진로교육 관계자들의 진로교육을 바라

보는 인식 차이 역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학교중심의 진로교육 관점이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걸림돌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원고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에 국한되어 언급해주셨지만 현재의 학교중심 진로교육 관점을 넘어선 전 생애적 관점의 진로교육이 구현되어 각 대상별 또는 각 생애주기별 분절된 것이 아닌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 개인의 진로개발 문제는 과거에 비해 한층 더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가 되었으며, 학교 진로교육을 넘어선 범위에서 전생애 관점의 지속적인 개입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특정 대상이나 시기에 국한된 진로교육 관점에 큰 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교육의 주요 대상도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누구도 소외될 없이 모든 국민이 생애 단계별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각도와 접근법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보다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생 진로교육 또는 생애진로교육 접근법을 추구할 때 그동안 특정 대상, 특정 시기만을 위한 진로교육 체제에서 나타났던 걸림돌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평생 진로교육 또는 생애진로교육 체제가 구축될 때 누구를 위한 진로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제 변화, 급변하는 노동 및 고용환경에의 대응,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등의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진로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희망 디딤돌

- 다행히도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 디딤돌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생애를 관통하는 평생 진로교육 또는 생애 진로교육 체제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중요한 인프라인 국가 진로교육센터 역시 중요한 희망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학교 진로교육을 넘어선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국가진로교육 목표가 수립되고, 평생 진로교육 체제 혹은 생애 진로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

조영아 /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정책, 그리고 각종 진로교육 지원 서비스가 활발하게 수행됨으로써 진로교육의 한 단계 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표자가 중요하게 언급하시고 진로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교 진로교육 역시 더욱 견고해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 이러한 희망 디딤돌들이 큰 방향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진로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끼를 발견하고,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각기 다른 꿈을 꾸면서도 그러한 꿈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지향하는 다소 이상적인 모습이 실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교육부.
- 교육부. (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교육부.
- 김봉환. (2017). 진로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제 45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3-47.
- 이지연.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과 진로교육의 방향. 직업과 인력
개발, 20(5), 20-38.
- 정철영. (2017). 미래 진로교육 패러다임: 진로교육의 개념과 인식을 중심으로. 제 45차 한국
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1.

주제토론 4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 -디딤돌과 걸림돌을 중심으로-

주재술 (울산과학기술원, 학사팀장)

'학교 진로교육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주 재 술

(UNIST 학사팀장)

중등교육 현장에 진로교육의 본격 도입 시행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교실을 극복하고 교육의 쓸모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또한, 교육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정량화된 지표로만 이해하고 설명하던 관행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사람(학생)을 또는 그 사람의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통해 교육 활동 결과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그러기에 진로교육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역시 집단화 부류화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학생 모두를 자주적 인간으로 대접한다.

수 천 학교에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진로 교육의 성과는 관련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제대로 이해될 것이기에 관련 정책과 제도 및 그것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발표자는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로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인식이 높아져 그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앞으로 충분한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고교 3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찾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이야기한다.

다만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교육적 성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에서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로교육이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진로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진로, 직업 등에 대한 정보의 취득을 넘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해 주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존재를 실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이며 진로교육은 직업 세계로 들어설 때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현재 사회처럼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큰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직업의 존재 형식과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직면해 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존에 있는 직업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관점으로 변화무쌍한 노동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중심을 둔다는 시각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자 한다. 중등학교 교육과 그것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미리 노동시장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직업 및 진로 설계 역량을 교육하는 것이다.

즉, 대상을 탐구하고 탐색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여 얻은 결과를 동료 학생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자산을 진로 교육의 텍스트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연습하고 기르는 교육이 진로교육의 목표이다. 이들에게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 선발과 전공 선택에 있어 이미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전공 입학 또는 모집단위의 광역화, 입학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전공 자유선택이나 융합전공과 복수전공 선택, 또한 선택한 전공을 변경할 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UNIST는 이미 10년 전 개교할 때부터 국내 최초로 모든 학생이 무전공 입학 후 조건 없는 전공 자유선택 및 모든 학생 두 개 이상 전공 이수를 실시하고 있다. 매 학기 자유로운 전공 변경 기회를 주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계열 학생들도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POSTECH에서도 신입생 무전공 입학 후 전공자유선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가장 큰 성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설문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하기에 진로교육이 체계적이라고 할 때 체계적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발표자는 학교 진로 교육 발전의 결림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정부 진로교육 정책이 가장 많은 답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설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한 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면 그 의미는 더욱 살아날 듯하다. 대개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이 의례히 그러하듯 무릇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상당한 편차를 가진 채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발전의 걸림돌로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대입제도 역시 상당한 정도로 응답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입시 중심 교육, 수능 중심 교육이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역량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한다.

학교 진로교육의 도입과 강화는 대학 입학 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대입제도는 다양한 고교 유형과 그것보다 더 다양한 대학 교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 설문이 진로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어쩌면 이 결과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최근 대학입학제도의 다양성 강화는 오히려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

발표자는 학교 진로교육 발전의 걸림돌로서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극복될 것이라 설명한다. 다만 이 발표문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이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극복될 것이라는 생각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덧붙여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부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학교경영자의 경영 철학도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 교과 교사들이 가지는 인식이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이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을 진로교사에게 국한시키는 것은 수학, 국어, 영어 등을 교실 안 교육으로 가두었던 전례에 다름 아니며 칸막이 교육의 또 다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모든 교과 교육이 진로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물론 모든 교과 교육이 진로교육이라는 개념을 중등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만연시키기에는 아직은 많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이 서서히 시간이 흐르며 해결되기를 기다리기에는 힘 있는 진로교육을 요구하는 현실이 분명하게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한 명의 학생도 소중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명제는 구호로만 주장되기에는 시간이 없다.

학교 진로교육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중 학력 간 임금 격차 및 불평등사회 구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토론자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내용상 더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학교 안에서 잘 이루어진 진로 교육이 학교 담장을 나서는 순간 냉혹한 계층화된 사회를 만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진로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가장 기본적 요구일 것이다. 학교 진로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은 우리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자산은 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 사회의 모든 자산 특히 공공자산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최대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원활한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는 지역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의 상당한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자산은 진로교육의 지역간 불평등을 심각하게 유발한다. 기존의 지식전달중심 교육, 교과지식 중심 교육에서 오랜기간 동안 발생 유지되어 온 교육 불평등이 진로교육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강화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미래 직업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진로 설계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직업세계, 진로교육의 대평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교육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기도 하다. 모든 이들에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가치 실현은 학교 진로교육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진로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면적 결합을 통해서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의 설문 방법에서 아쉬움은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이나 타 교과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된다면 이 글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번 설문조사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진로교사를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처음부터 진로교사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었던 점은 아쉽다. 이것을 보완하거나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진료교사가 아닌 다른 교과 교사들이 진로교육 및 진로교사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을 같이 조사한다면 진로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그들이 가지는 진로 교사에 대한 생각이나 특히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 교육 내용에 대한 생각 등을 살펴보면 진로교육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학교 진로교육의 본격적인 시행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아마도 학교 진로교육에 종사하는 전국적 교사네트워크의 구축일 것이다. 이것이 교육과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진로교육이 소위 지적 영역의 학업성취도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국적 교사 네트워크는 교육과정을 애초의 목적과 목표대로 운영하게 해주는 큰 동력이 된다. 학교진로교육은 그것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본질상 무수한 다양한 교육 사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면에서 전국 교사 네트워크는 진로교육의 제자리 잡기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진로교육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나름 정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도 이 네트워크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할 것이다.

사례 발표 1

학교 진로교육 성공사례: 다문화 학생에게 희망을

김명숙 (서울오산중학교, 교사)

다문화 학생에게 희망을

김 명 숙

(서울오산중학교 전문상담교사)

I. 학교현황

1. 학생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급수	6	6	6	18
학생수	118	147	147	412
다문화 학생 수	국제결혼 가정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 9	4 1 3	4 1 12 3 14
다문화학생수	14	8	7	29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	11.9	5.4	4.8	7.0

2. 다문화 학생 국가 현황

구분	인원	비고 (본교 재학중 학생의 국적)
아시아	19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
중동	1	이라크
아프리카	7	말리, 나이지리아, 이집트
아메리카	2	에콰도르, 캐나다

서울오산중학교는 지리적으로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거리, 이화시장 골목 주변의 아프리카 거리가 인접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태원과 경리단길을 중심으로 이태리, 프랑스, 그리스, 인도, 태국, 중국 등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지역의 대부분이 7층 이하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과 지역주민으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II. 중학교에서의 진로상담(교육) 실시 현황

현재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당 10회 내외의 <진로와 직업>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1〉 교육부 (2016).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대영역	중영역	세부목표
I.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1.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아존중감을 발달시켜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 다양한 특성을 탐색한다.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상과 상황에 맞는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한다.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II. 일과 직업 세계 이해	1.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	직업의 역할을 알고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탐색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탐색한다. 창업과 창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모의 활동을 해본다.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가치를 탐색한다.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 및 권리를 이해한다.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개선방법을 찾아본다.
III. 진로 탐색	1. 교육 기회의 탐색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는다. 고등학교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
	2. 직업 정보의 탐색	다양한 방법과 체험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탐색한다. 직업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한다.
IV. 진로 디자인과 준비	1. 진로 의사결정능력 개발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 요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
	2. 진로 설계와 준비	자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에 대해 잠정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진로목표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① 자아이해 ②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③ 진로탐색 ④ 진로디자인과 준비 등의 4가지로 내용이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따른 것이다.

1. 오산중학교 진로탐색활동

가. 청진기(청소년 진로 체험의 기적)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에게 관심있는 직업군을 조사하여 해당되는 직업체험장소를 선정한 후 각각의 체험처로 직접 찾아가 직업과 관련된 특강 및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학년도에는 경찰서, 구청을 비롯하여 도자기공방, 만화캐릭터창작소, 커피숍, 동물병원, 헌법재판소, 한복디자인연구소 등 12개의 체험처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였다. 또한 사전, 사후활동을 통해 체험장소에 대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직업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표 2〉 청진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일 시	활동 내용	장소
제1일 사전 교육	○ 진로와 자기이해: 진로의 기본 개념 ○ 직업체험의 의미 설명 ○ 안전교육: 직업체험 시 예상되는 모든 상황별 안전교육실시	
	○ 일터 예절 - 일터 예절 안내와 사전인터뷰 내용 정리 - 자기소개서 작성, 직업 체험 참여 서약	학교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해 ○ 사전 질문지 제작	
제2일 일터 체험	○ 일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업무 체험 ○ 일 체험 방식과 인터뷰 방식 혼용	일터
	○ 브레인 라이팅 및 발표 - 일터에서 체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각자 찍어온 사진을 이용하여 발표	
제3일 사후 평가	○ 직업체험 소감 및 보고서 작성 - 직업체험보고서 작성(활동지 활용)	학교
	○ Thank you Card(개인별 편지쓰기) - 직업체험 사후 설문지 작성하기	

나. 학교로 찾아오는 직업특강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직업군에 대해 사전조사 한 후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과의 만남(재능 기부)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사전에 관심있는 직업특강을 2가지씩 정하고, 직업인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 특강을 듣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다. 다음 교시에는 교실을 바꾸어 다른 직업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2017학년도 직업특강 초청 강사목록

직업군	이름	경력	교실
1 PD	KBS VJ특공대, 생방송 오늘 등	1-1	
2 건축가	ONUL 건축가 / 00대 외래교수	1-2	
3 게임 프로그래머	**Factory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팀장	1-3	
4 광고 디자이너	디자인 메르** 대표	1-4	
5 교사	오산고 교사	1-5	
6 교수	00대 총장(교수) / 버클리대 초빙교수	1-6	
7 군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2-1	
8 기상캐스터	**방송 기상캐스터	2-2	
9 노무사	**노무법인 서울지사 대표	2-3	
10 드론전문가	드론교육지도사 2급	2-4	
11 로봇공학자	**OM 대표-블록개발연구가	2-5	
12 변호사	법무법인 ** 변호사	2-6	
13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재직	3-1	
14 스포츠 캐스터	2016 리우 패럴림픽(유도, 수영, 육상) 중계	3-2	
15 에듀테이너	*에듀엔터테인먼트 강사	3-3	
16 영화감독	장편영화 <역전의 명수>, <경의선> 등	3-4	
17 의사	**치과	3-5	
18 캐릭터 디자이너	독립출판 갤러리북카페 **	3-6	
19 회계사	** 회계법인	3-7	

다. 오산중학교 위클래스(Wee Class) 진로탐색 활동

위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진로상담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 자아 이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대인관계, 의사소통역량 등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진로탐색의 동기가 부족하고, 무기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회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진행한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도 진행되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정보전달식 교육보다는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통해 또래들과 소통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개발 및 규칙준수, 갈등해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1) 프로그램 사례

〈표 4〉 전통 놀이를 통한 다문화학생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계획

회기	전통놀이	세부수업내용	비고
1	콩주머니	◦ 콩주머니 만들기 (콩, 쌀, 옥수수, 보리 등)	
2		◦ 콩주머니 던지기 놀이	
3	투호	◦ 나의 꿈 찾기 ◦ 종이비행기 접기	
4		◦ 투호놀이 소개 ◦ 투호 놀이 하기	
5	제기차기	◦ 비닐봉지로 제기 만들기	
6		◦ 제기차기 놀이하기	
7	윷놀이	◦ 윷놀이 규칙 ◦ 윷놀이 하기	

간단한 전통놀이를 선택하여 놀이도구를 직접 만들고, 다함께 놀이활동을 해봄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사는 수업시간동안 학생의 말, 태도, 행동 등의 반응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마음나누기 시간을 활용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칭찬을 해줌으로써 자존감 회복 및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한다. 학생들도 놀이를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놀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정하기, 도움주기, 도움 받기, 팀워크 발휘하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전통놀이를 통한 사회성향상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분) 〉

활동명	콩주머니 만들기	차시	1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의 이름 맞추기 및 직접 만져보고 촉감 느끼기 ○ 곡물과 조각천, 양말을 이용한 콩주머니 만들기 			
공간구성	○ 모둠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책상배치, 개인별 준비물 확보			
과정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출석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와 수업내용 소개 	5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식 이름 알기 ◦ 콩주머니 만들기 ◦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곡식의 이름을 알아본다. ◦ 손으로 만져 보아 촉감을 느낀다. ◦ 곡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PPT를 보며 현 양말로 콩주머니 만드는 과정을 숙지한다. ◦ 바느질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현 양말 안에 각자 원하는 곡식을 넣어 콩주머니를 만든다. ◦ 콩주머니 던지기 놀이 (목표물 맞추기) ◦ 바구니에 던져 넣기 ◦ 콩주머니로 할 수 있는 놀이 개발하기 	10 30 30	<p>현양말 바느질용품 (실, 바늘) 곡물 3~4가지 (콩, 팥, 수수, 옥수수, 보리, 쌀 등),</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나누기 ◦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의 태도, 행동을 기억했다가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 ④ 00이는 오늘 바느질 하는 방법을 &&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 차시예고 	5	

활동
사진



2) 프로그램 사례: 「공감 두드림! 열려라 우리들 마음」 수업지도안

활동 목표

- ▶ 미술, 놀이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다양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식 등을 배우고 익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능력을 키운다.
- ▶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 활동으로 수업을 전개하여 자신의 내적 능력을 발견하게 하며 사회적 규칙을 익혀 또래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차시별 운·영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준비물
1	·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수업내용, 목표 등) · Ground Rule 정하기 · 캐릭터 이름표 만들기를 통한 자기소개 	포스트잇 A4
2	· 자기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잡지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 · 콜라주 작업 후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그리거나 재구성 하여 자기 표현 	신문, 잡지 풀, 가위, 도화지 종이테이프
3	· 타인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신체그리기 · 칭찬하는 말 적어주기 (Rolling Paper) 	전지, 크레파스, 네임펜
4	· 긍정적 상호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를 통한 규칙익히기(땅따먹기) · 명암시계를 이용한 상황별 감정인식하기 	전지, 파스텔, 풀, 가위
5	· 자기이해, 타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봉대를 활용한 가면 만들기 · 2인 1조로 상대방 얼굴 석고로 본떠주기 	석고봉대, 물
6	· 자기이해, 타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봉대를 활용한 가면 꾸미기 	물감, 붓, 꾸미기재료

〈표 5〉 「공감 두드림! 열려라 우리들 마음」 수업지도안 (5회기)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수업 형태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암 시계 만들기 ◦ 수업목표 제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봉대로 친구의 얼굴모형을 만들어주면서 신체접촉을 통한 타인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통한 따뜻한 느낌 받아들이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 가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1조로 상대반 얼굴을 석고로 본떠주기 - 본떠기 전에 만들고 싶은 형태 의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과 입의 모양 :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 표현방법 - 석고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내기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들기 작업하는 동안 배경 음악 틀어주기 친구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 가면서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소감 나누기 (학생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수업 중 활동을 자세히 관찰한 후 구체 적 행동을 통한 칭찬의 말 해주기 		발표
활동 사진	  		
	<p>친구얼굴 본떠주기</p>	<p>친구얼굴 본떠주기</p>	<p>친구얼굴 본떠주기</p>

3) 프로그램 사례: 청소년, 마을을 밝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과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접목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 주도의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우범지역 및 장소 선정, 범죄예방 효과의 공공디자인 작품 제작 및 설치 및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마을 명소화의 계획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 봉사활동 · 캠페인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사회참여와 지역교감 확대, 사회적 존재가치 인식, 삶과 진로에 대한 자아 탐색 · 성장의 계기 마련, 예술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문화의식 형성, 예술적 재능 발현 기회 제공하고자 한다.

김명숙 / 다문화 학생에게 희망을

회기	주제	목표 및 활동내용
1	우리 마을의 HOT SP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마을 속 범죄 취약 지역 빌글 마을 지구대 현장 방문 - 우리 마을 범죄율과 장소 관계 확인
2	별빛 거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 바닥 부분 디자인 계획 수립 점과 선을 이용한 조형 디자인 ex) 별자리 태양광 충전 표지판을 활용한 CPTED 디자인 계획 또는, 시간과 움직임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계획 (센서활용)
3	별빛 거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를 담은 전구조명 형태 만들기 단단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조명 아이디어 제안
4	별빛 거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점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패널 활용 미니 LED 램프를 활용한 미니어처 목업(샘플) 작업 진행 실제 거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 산출(실효성 점검) 영상촬영 결과의 확인 - 미니어처 작업을 통해 느낌을 점검
5	이야기가 담긴 빛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per cut light box 작품을 응용한 CPTED 디자인 평면 릴리프 구조와 빛의 관계를 활용한 심미적 디자인 제안 활용 가능 범위 점검 및 유산지를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6	이야기가 담긴 빛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광등과 아크릴 판넬을 이용한 미니 라이트 박스 제작 다양한 인공 빛의 종류와 느낌 - 백열등, 형광등, LED / 스위치 종류
7	이야기가 담긴 빛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여 디자인 한 도면을 협업하여 커팅 어두운 곳에서의 점등 작업을 통해 결과물의 확인 점검
8	우리가 제안하는 마을 디자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장소를 변화시킬 계획서 프리젠테이션 concept 보드제작 - 디자인 계획의 구체화 평면, 입면 위의 예시 작업 시뮬레이션 작업진행 (2개 팀 작업) concept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제안서 문구 작성 목업을 활용한 UCC 제작 - 활용준비
9	우리가 제안하는 마을 디자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자체체, 주민센터, 경찰서 등 방문 · 마을 현장 협력 활동 & 디자인 제안 프레젠테이션 / UCC 영상 쇼잉 유무형의 협조 및 지원 사전 협의
10	빛으로 밝히는 골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원자와 학생들의 만남 - 필요한 디자인 전달 방식 / 도면, 그림 캐스팅 작업 등 제작 지원가능 한 과정 진행 전달
11	청소년 CPTED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완료 홍보 - 보도자료 배포, SNS 업로드 마을 캠페인 피켓제작 디자인 소개 안내 판넬 제작 시민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 안내 및 역할 나눔 (내빈)
12	청소년 마을을 밝히다 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 최종 점검 기술지원 전문 인력과 함께 전기 배선 등 시설 마감 확인 야외 설치 조형물(부조)로서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 강화를 위한 사후 보강 및 보수 작업 진행 제막식 워크숍 준비



※ 프로그램운영 협조기관 **Joshua tree**
Joshua tree
Joshua tree Education & Art Concierge

4)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바리스타 ‘커피 타는 중학생’

바리스타 수업을 진행하여 커피의 역사 등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한 후 지역축제에 참여해 커피 판매를 직접 경험해 보았다. 학생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 판매할 메뉴와 가격을 결정하고, 커피추출, 계산, 재료구입 등의 역할을 정해 활동해봄으로써 경제교육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표 6〉 커피 바리스타 수업 일정

회기	교육내용
1	커피의 역사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커피의 발견과 발전과정, 커피의 재배, 수확 및 건조 방법
2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의 이해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의 명칭 및 원리, 청소 관리요령 등 숙지 에스프레소의 정의 및 추출원리, 에스프레소의 추출 조건
3	탬핑 작업 이해와 에스프레소 추출 에스프레소 추출 실습 / 추출을 통한 능력향상과 향미 평가
4	다양한 에스프레소 추출 에스프레소 추출 실습
5	에스프레소 연속 추출하기 탬핑, 태핑 이해와 정확한 커피추출하기
6	스팀 밀크의 이해 우유 거품의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스티밍의 실습 우유 스티밍의 생성원리 및 밀크 스티밍
7	카푸치노 만들기 스팀피쳐와 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따르기 작업
8	커피 판매 부스 설치를 위한 회의 메뉴, 가격정하기, 역할정하기

사례 발표 2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성공사례: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희망을

고영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 팀장)

고영수 /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사례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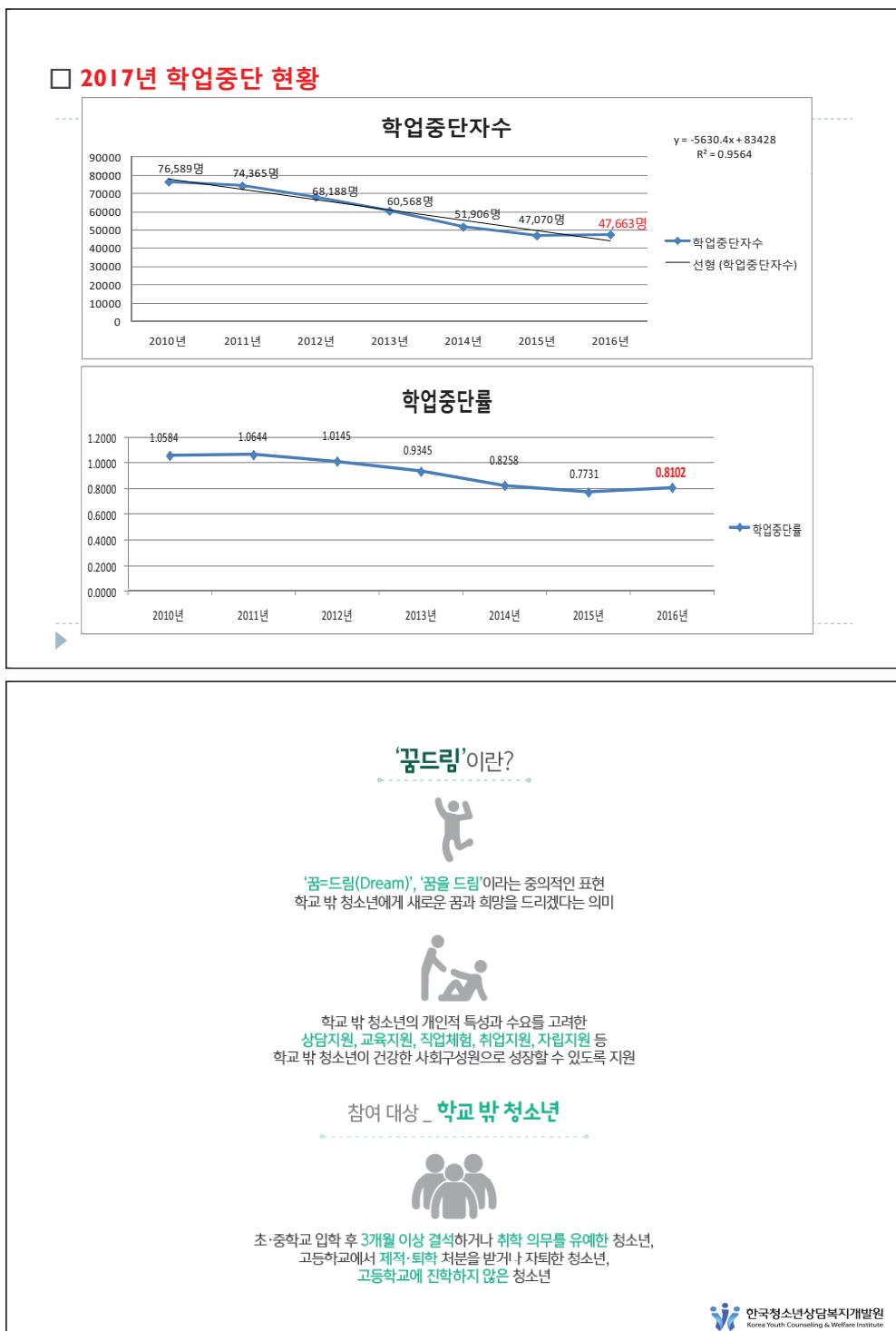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사례발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심리·진로상담, 자립·학습동기강화 상담, 가족상담 등
취업지원	직업체험, 진로교육, 경제활동체험, 취업연계 지원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건강·정서 지원, 법률교육, 생활기술 지원, 자기개발 등
특성화 프로그램	재능개발,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참여 활동, 지역특화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교과서 학습지원, 특기적성 지도, 진로상담, 심리·정서 지도 등
건강증진	건강검진 지원, 건강생활 실천관리 지원, 체력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교육지원	복학·실급학교·대안학교 진학지원, 급점 고시 지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학업중단 예방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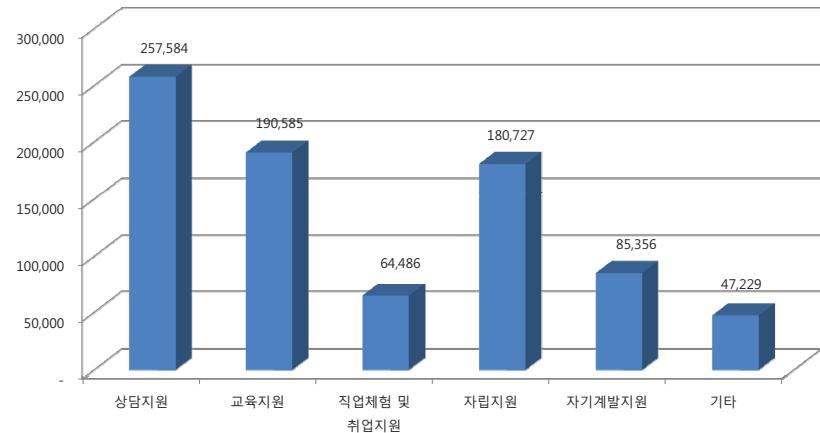
□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명)

연도	서비스인원	학업복귀	사회진입
2015	33,718	4,948	4,002
2016	53,553	8,384	7,062
2017	65,685	10,643	8,561



□ 2017년 지원 서비스 현황

총 825,967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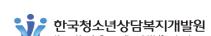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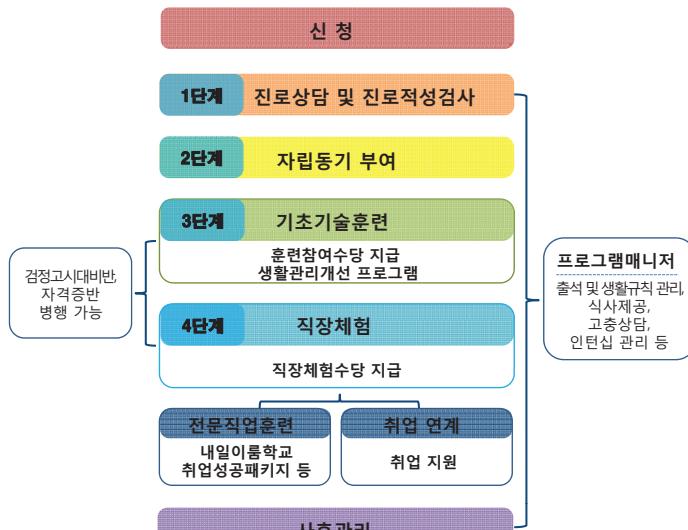
목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전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동기 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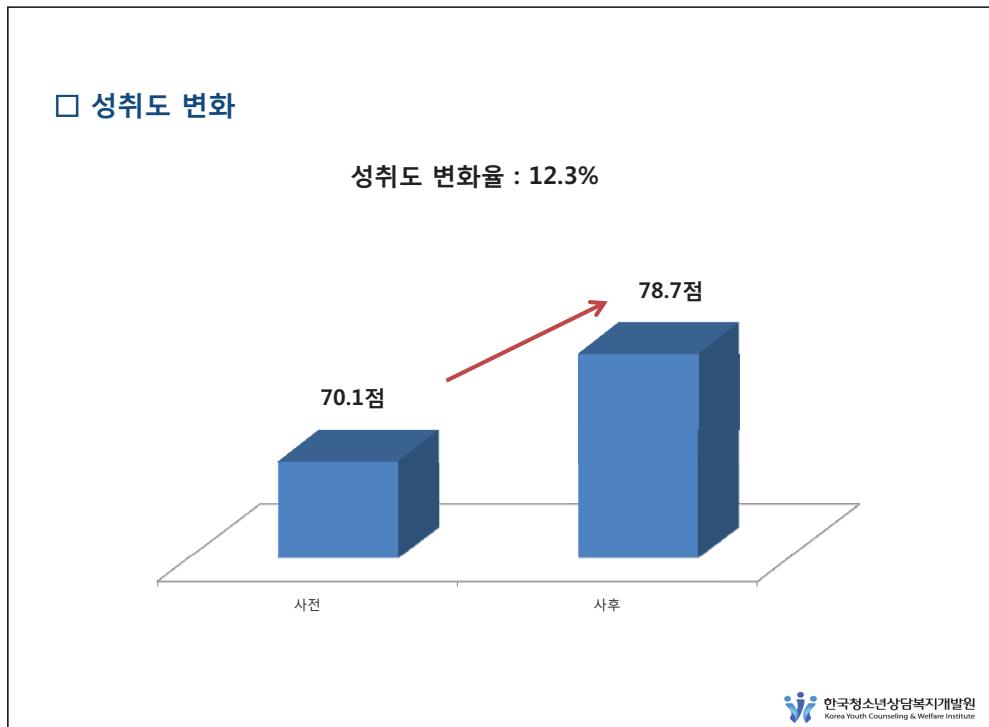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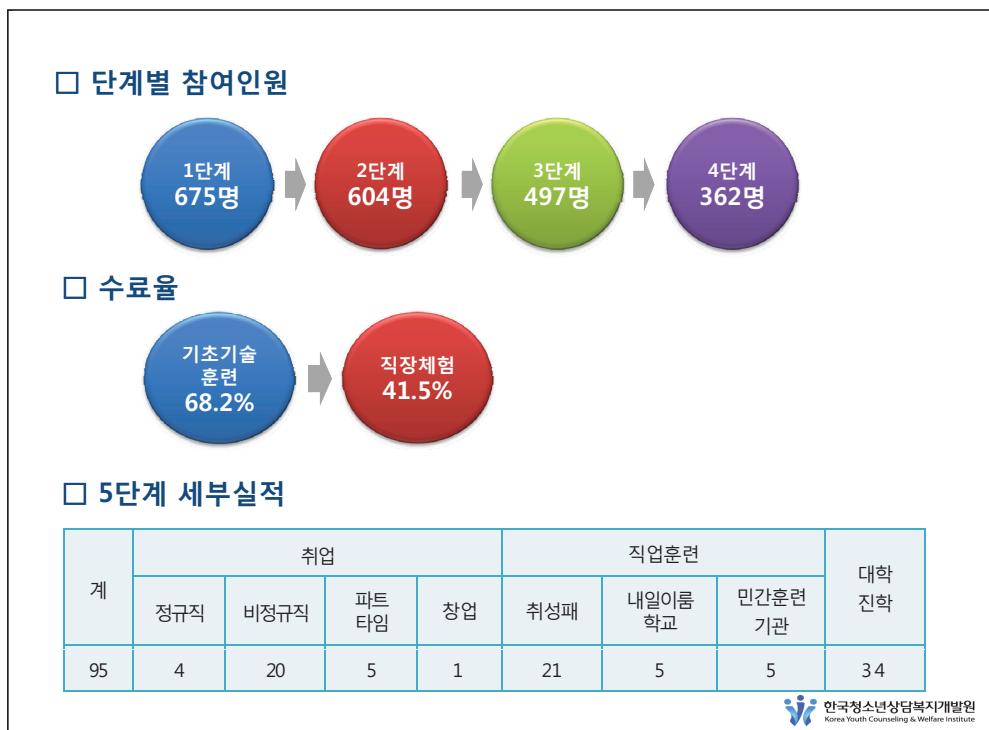
- 대상**
-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총 8개 지역)



□ 서비스 흐름도





내일이룸학교 (구. 취업사관학교)

□ 개요

내일이룸학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과정 종료 후에는 취업까지 지원하는 기관

대상

15세 ~ 만 24세 학교 밖 청소년

예비학교 → 직업훈련+특화 프로그램 → 취업지원

* 예비학교 : 훈련과정 및 내용 안내, 훈련생 간 친밀감 조성 등 훈련과정 적응
프로그램

훈련과정

* 직업훈련 : 보통 6개월(700시간) 이상 진행

* 특화 프로그램 : 검정고시반, 예·체능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심리
상담 등 직업훈련 이외 기초학력 촉득, 특기적성 개발, 스트
레스 해소 등 지원

□ 내일이룸학교 현황(16개)

지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시간	모집인원	기숙사
서울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기공조립	10개월	50명	보유
	애란원(청소년 미혼모)	간호조무사	10개월	15명	보유
	CJ나눔재단	바리스타	5개월	12명	통학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뷰티아티스트	7개월	20명	통학
부산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바리스타/조리사	13주/14주	20명	통학
	더굿세이브부산지부	트리밍3급/반려동물관리사	6개월	15명	통학
대구	대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드론운용 전문인력	11개월	20명	통학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네일 국가자격증	10개월	20명	통학
	HS평생교육원	애견스타일리스트	6개월	16명	통학
광주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바리스타 및 머신AS	6개월	15명	통학
경기	(주)한국직업학교	힐링푸드&조리사 양성	7개월	20명	통학
충북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재개발원	초급 사무관리 인력 양성	8개월	25명	보유
충남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과제빵	10개월	20명	통학
	동천안 직업전문학교	미용사 양성	10개월	20명	보유
전북	원광 보건대학교	헤어미용	8개월	20명	보유
경남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피부미용	8개월	20명	보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감사합니다.

(주)학지사 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대학생 인생설계 워크북

-나를 향해 떠나는 여행-

이의용 저

- 국제판
- 256면
- 11,000원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임경희 · 박미진 · 정민선 · 한수미 ·
이종범 · 김진희 · 흥지영 · 문승태 ·
김수리 · 최인화 · 조봉환 · 이인혁 공저

- 크라운판
- 416면
- 18,000원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통한 대학생의 진로 설계

송원영 · 김지영 공저

- 크라운판
- 216면
- 9,000원



2판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꿈을 찾아가는 포트폴리오-

황매향 · 김연진 · 이승구 · 전방연 공저

- 사류배판변형
- 240면
- 13,000원



경력개발전략

-이론과 실제-

백지연 저

- 사류배판변형
- 448면
- 18,000원



전공탐색과 생애설계

윤명희 · 이정희 · 서희정 · 강창완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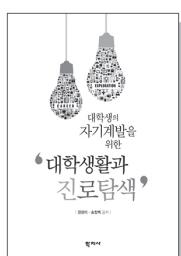
- 사류배판변형
- 432면
- 18,000원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침서

김희수 저

- 크라운판
- 176면
- 11,000원



대학생의 자기계발을 위한 대학생활과 진로탐색

권창미 · 송창백 공저

- 사류배판
- 144면
- 13,000원



동기촉진 진로 상담과 코칭

Steve Sheward · Rhena Branch 공저
김장희 · 정영숙 · 최경희 공역

- 크라운판
- 304면
- 16,000원



2판 진로와 자기계발

유채은 · 조규판 공저

- 사류배판
- 400면
- 18,000원





한국진로교육학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07호

e-mail : careeredu1@hanmail.net

home-page : <http://www.careeredu.net>